



미기총 총회에 참석한 회원과 참석자들

연방대법원

기업의 종교자유 인정

연방대법원이 기업의 종교자유를 허락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하비로비 사는 오바마케어의 낙태 및 피임 강제 조항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소송을 벌여 결국 승소했다.

이 소송의 핵심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자유가 개인이나 비영리 단체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리 목적의 기업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소송은 미국의 헌법에 명시된 종교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송이면서 동시에 고용주의 종교성이나 종교적 경영 방침이 정부 혹은 제3자와 마찰을 일으킬 시 어느 선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새뮤얼 알리토 판사는 “이 판결은 보험에서 낙태 및 피임에 대한 조항에만 적용되며 예방 접종이나 약물 투여와는 반드시 직결돼 있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그는 “직원들은 낙태나 피임과 관련된 혜택을 오바마 행정부가 종교단체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조항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더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 것은 종교와 의료 행위에 대한 우선권 논쟁이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종교적 이유의 수혈 거부, 예방접종 거부, 키모 치료 거부 등 종교가 의료 행위와 마찰을 빚은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 알리토 판사는 ‘낙태와 피임에 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직원들의 수혈에 관한 보험을 거부한다든지, 무슬림 기업이 돼지에서 추출한 콜라겐 시술을 거부한다든지, 고용주가 종교적 이유로 예방 접종 보험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나 소토마이어 판사는 구두변론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으며 엘리나 케이건 판사는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을 들어, 성차별 금지법, 최저임금법, 어린이노동법 등도 거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판결은 오바마케어의 낙태 및 피임 조항과 관련해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 40여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준형 기자

美 한인교회 연합해 세계선교 마무리

미기총 제16대 회장에 한기홍 목사 인준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의 제 16대 대표회장에 한기홍 목사가 인준 받았다. 전 회기 수석공동회장이었던 한 목사는 이번 총회에서 대표회장에 공천받아 회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최종 인준 절차를 마쳤다.

이 총회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북미와 남미는 물론 한국까지 포함해 총 50여 명의 교계 지도자와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등

남가주 지역의 교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얼마 전 취임한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의 장석진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의 김요셉 초대회장도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동안 미주 한인 교계의 대표 단체라는 입지를 놓고 서로를 견제하며 서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남가주교회, 동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미기총이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이날 회원들도 한기홍 목사에게 “동서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주문하며 큰 기

대를 내비쳤다. 한 목사는 나아가 세계기총, 한국교연 등과도 적극 연합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특별히 오전 시간에는 “건강한 이민교회를 위한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 아래 4차례의 세미나가 진행됐다. 강사로는 박희민 목사, 윤사무엘 목사, 김선배 목사, 조갑진 목사 등 이민교회에서 존경받는 인사들이 참여했다.

저녁 시간에는 은혜한인교회에서 원광연 목사(전주 바울교회)를 감사로 열리고 있는 “한여름 성령집회-생

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에 모든 총회원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올해 총회에서는 5명에게 “장한 크리스천 상”도 수여됐다. 목회자 부문에서는 미국장로교 총회 한인목회 총무를 역임한 김선배 목사와 예배회복운동의 선구자 최고선 목사가 수상했다. 미디어 부문은 JSTV의 이종문 목사, 선교사 부문은 예장 통합측 제1호 선교사이자 불리비아 우세볼대학 총장인 정은실 선교사가 수상했다. 평신도 부문은 뉴저지 한소망교회의 김유봉 장로가 수상했다.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는 “복음을 전하기 점점 어려워 지는 시대 풍조 속에서 미기총의 사명이 매우 크다”고 평하며 “미주 한인교회의 연합을 도모하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미기총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준형 기자

“지진 와도, 불 나도 우리는 상관없어?” 교회 내 안전불감증 물렸거라!



나성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주일예배를 드린 후,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미주 내 한인사회 내에도 안전사고와 각종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성순복음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성도들을 적극 교육하고 있다.

이 교회는 최근 한 달 간을 안전점검 기간으로 삼고 교회 내에 성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 요소들을 제거하는 한편, 소화기나 비상출구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또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화재

나 지진시 대피 요령을 알려주고 교회 내 소화기와 비상구 위치도 소개했다.

최근엔 주일 예배를 드린 후, 화재 비상탈출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당시 사이렌이 울림과 동시에 본당을 포함해 교회 건물 내에 있던 약 1500여 명의 성도들이 동시에 교회 밖으로 이동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훈련이었다. 이 훈련에는 어린 학생들도 교사들의 인솔 아래 참여했다.

김준형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Health Net **DK HEALTH INSURANCE, INC.**

헬스넷 보험회사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DK건강보험이 헬스넷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소개합니다.**
 (구 하나건강보험)



213-500-4563
ID:DKHEALTH

1. PPO 스타일의 HMO 플랜이기 때문에 건강 보험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합니다.
2. PPO 스타일의 HMO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이 매우 좋아합니다. HMO는 매달 소정의 담당환자의 수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 비용을 받지만 PPO는 환자의 방문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 비용을 받습니다. 헬스넷의 오바마 건강보험은 HMO이지만 환자 방문에 따라 의료비가 지불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매우 좋아합니다.
3. DK건강보험의 진정한 건강보험 프로들의 에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카카오톡 서비스를(카카오톡 계정 DKHEALTH 혹은 213-500-4563을 저장하세요)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카오톡을 통해 건강보험의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서비스 해드립니다. 신분이나 세금을 내신 기록에 따른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한 저렴하며 보험가입자의 혜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세부터 65세까지의 모든 건강 보험을 도와드립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도 도와드립니다.

문의 전화 **1-855-386-3088, 1-213-500-4563** **DK HEALTH INSURANCE, INC. (구, 하나건강보험)** **DKHIS.Inc LIC #: 0146629**

남가주 지역에 CBS 기독교 FM 방송 개국

채널 FM107.5 HD2, 다양한 콘텐츠 보급 예정



CBS 기독교 FM 방송이 개국을 위한 기자회견담회를 27일 열었다. 가운데가 최영일 사장, 왼쪽 끝이 선교기획국장 양경선 목사.

남가주 지역에 CBS 기독교 FM 방송이 개국된다. 채널은 FM107.5 HD2으로, 라디오 종합 기독교 프로그램 방송으로 구성되며, 미국 내 한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된다.

현재 CBS 기독교 방송은 남가주 지역에 TV는 진출한 상태이며, 라디오는 6월 1일부터 시범 방송 중에 있다.

CBS 기독교 FM 최영일 사장은 “이

번에 미국 현지 법인으로 세워진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를 보급하고, 추후 현지 콘텐츠 제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음질이 뛰어난 FM 디지털 방송을 통해 젊은 층을 포함해 전체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방송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애틀랜타, 시카고, 휴스턴, 달라스에 추가로 개국할 예정이다”라고 말

했다.

CBS FM 방송은 현재 주중과 주말 24시간 동안 방송되고 있으며, 가칭 지역은 남쪽으로 어바인 남단, 북쪽으로는 랭캐스터, 산타바바라 지역, 동쪽으로는 리버사이드, 팜스프링스 초입까지 두고 있어 남가주 한인들의 청취를 기대하고 있다.

방송은 한국 내외와 미국의 시사 뉴스, 예능 프로그램, 성서 강해, 교계 뉴스, 목사, 크리스천 칼럼, 기독교 강단, 가스펠송, 라디오 교회, 에세이와 간증, 인터뷰, 교회 탐방 등으로 구성된다고 방송사 측은 밝혔다.

이 방송사의 고문으로는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은퇴), 김경진 목사(나성영락교회) 등 교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CBS 기독교 FM 개국 기념예배는 오는 7월 17일 오후 6시에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다.

▷ 홈페이지 : www.cbslove.com
▷ 문의 : 213-674-5518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 놀렉에 위치해 있던 늘기쁨교회가 부에나파코로 이전하며 감사예배를 드렸다.

늘기쁨교회 새 성전에 입당

늘기쁨교회가 새 성전에 입당하며 감사예배를 지난 6월 29일 드렸다. 이 교회는 1982년 창립됐으며 하나님의 성회 한국총회에 속해 있다.

지용웅 담임목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지방회장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교회)가 기도했으며, 증경부총회장 최영선 목사(새하늘교회)가 “은혜가 임하는 곳”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전 지방회장 김일권 목사(다िया

몬드감사한인교회)가 헌금기도를 하고 증경총회장 소교민 목사(실비치사랑교회)가 축도했다. 이 예배에서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증경총회장 강순철 목사와 전 지방회장 권필립 목사(복음의빛교회)가 축사했다.

▷ 주소 :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 전화 : 714-654-1961
김영신 기자

미주대신대, 총장에 권오달 박사 취임

“기도하는 신앙으로 은혜를 힘입어”



미주대신신대학교 총장 이취임예배를 마친 후, 교직원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미주대신신대학교가 총장 이취임예배를 6월 29일(주일) 오후 5시에 풍성교회(박효우 목사)에서 드렸다.

이날 권오달 박사가 총장으로 취임했으며 강부웅 박사가 이임했다.

취임사를 전한 권오달 박사는 “기도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힘입어 학교를 세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영구 박사는 축사를 통해 “가득 전진하길 바란다. 정통 신학관을 가진 많은 주의 종이 배출되도록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우 목사(부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기도 김영배 박사(선교대학장), 성경봉독 김성광 목사(남가

주노회장), 특송 허영란 선교사, 설교 강기운 목사(미주노회장), 이임사, 취임사, 축사 박영구 목사(교목실장), 최순영 목사(미주대신 총회장), 축도 이의안 박사(명예총장) 순으로 진행됐다.

강기운 박사는 “나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토마스 맹 기자



CTS가 주최한 희망 나눔 콘서트에서 수익금이 전달되고 있다.

CTS 기독교TV “음악으로 희망을 나누다”

정상급 음악인들과 성도들이 흡 리스와 장애우 가정에 희망을 전했다. 기독교TV CTS가 개최한 희망 나눔 콘서트가 6월 29일 엘카미노칼리지에서 열려 아름다운 음악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다.

CTS는 2010년부터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의 일환으로 나눔 콘서트를 열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희망 나눔이었으며 세계적인 테너 최승원 교수와 천재 피아니스트 노유진 씨가 초청됐다. 또 영국에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켄 아이소, 엘카미노칼리지의 첼리스트 최은경 교수, CTS 스트링 챔버 오케스트라, CTS 여성합창단, CTS 아이드림 콰이어 등도 함께 했다.

특히 소아마비를 앓았던 최승원 교

수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노유진 씨가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음악인이 된 스토리와 전 출연진의 희망 메시지가 영상으로 어우러지며 큰 감동을 주었다.

모든 출연진들은 희망 나눔에 동참하는 의미로 달란트 기부 형식으로 참여했으며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이 이들에게 감사희 어머니 전 시장을 통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콘서트 마지막 순서로, 수익금이 흡 리스 선교단체인 울타리선교회와 나성영락교회 장애아역부서인 소망부에 전달됐으며 CTS 측은 수익금의 일부를 엘카미노칼리지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한인 및 주류 선교단체에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김내래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제25회 여름 산상대부흥성회

세계 장애인과 함께

With the physically challenged of the world 일어나서 함께 가자(야2:13)

당기선교를 그리는 근국 한국에서 장애인과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 문		고 문		고 문		증경이사장		증경이사장		증경이사장		상임회장		증경회장		증경회장		실무위원장		조직위원장		운영위원장	
홍형순 목사 삼양감리교회	배동운 목사 청양리감리교회	추연호 목사 온곡리감리교회	김준훈 목사 철원리감리교회	김태석 목사 선민성리교회	구자경 목사 창원감리교회	고은기 목사 보림교회	김영덕 목사 삼위교회	최동훈 목사 세영교회	김평석 목사 온혜중앙교회	정남준 목사 광촌제일교회	박복영 목사 공주의성교회												
홍보위원장 21C		위원장		강 사		강 사		강 사		강 사		강 사		강 사		강 사		강 사		강 사		강 사	
김민준 목사 남치성교회	이현승 목사 남치성교회	김성희 목사 하와이사랑교회	김경식 목사 임마누엘교회	김의택 목사 익산성리교회	임민희 목사 즐거움교회	손문수 목사 동남순복음교회	강신권 목사 LA세계성경교회	김완기 목사 서울정월외파원목	이금자 목사 소망교회	정남준 목사 세생영교회	이수일 목사 수입감리교회												
미주자문위원		시카고지부장		미주지부장		뉴욕지부장		하와이지부		강동지부장		홍천지부장		시흥지부장		인천지부장		부산지부장		독산지부장		찬양강사	
김순철 목사 시카고방송국장	안성기 목사 남치성교회	이웅 목사 토렌스사랑교회	차철회 목사 청암교회	백애현 총무 하와이영광교회	김은혜 목사 수정교회	이상욱 목사 물결동산교회	조정애 목사 한국교회	조정숙 목사 제일중앙교회	강명애 목사 반석교회	홍사선 목사 행복원교회	고해욱 사모												

일시: 2014년 7월 21일(월)~25일(금)까지

집회: 새벽6시 낮11시 저녁7시 30분

주최: **엘림장애인선교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기 30-2 유통상가 412-1
www.ellem1004.com / Tel/(02)2632-4806 2634-6557

장소: 포천, 한국중앙기도원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4리 산 60-1번지(파주출)
Tel. (031) 531-1151~2, 533-0602

북한 어린이 위해 정성껏 영양쌀 포장

NAFEC 주최, 이민교회 봉사자들 참여해 포장 완료



제10차 생명의 영양쌀 100만 개 포장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

제10차 생명의 영양쌀 100만 개 포장 행사가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또 감사선교교회(최경욱 목사)에서 열리고, 많은 봉사자들의 협력에 힘입어 영양쌀 18만 5천 봉지(129팔렐)를 포장하는 작업이 완료됐다.

이 행사는 선교단체인 NAFEC(대표 이우영 목사)가 주관해 열렸으며, 포장이 완료된 4개 컨테이너 분량의 영양쌀은 통비치 항을 통해 중국 대

련을 거쳐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주류 구호단체인 FMSC와 연계해서 진행 중이며, FMSC는 영양쌀을 개발해 전세계 80개국에 지원하고 있다.

NAFEC는 영양쌀 포장 행사를 열어 그동안 총 2500만 개의 영양쌀을 북한 고아원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현재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의 긴급 지원 요청으로 이뤄

졌다.

‘영양쌀’은 쌀, 비타민 가루, 말린 야채, 콩을 말려 뿜은 가루를 껍에다 포장한 식량이다. 이를 통해 영양 공급이 이뤄진다 해서 ‘영양쌀’로 불리고 있다.

이우영 목사는 “이민사회가 어렵지만, 같은 핏줄인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펼쳐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번 포장 행사에는 인랜드교회, 또감사교회, 마가교회, 한국의 광야교회, 필리핀 교회, 일본인 교회, YWAM 등의 관계자 및 교인들이 참여해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

NAFEC 관계자는 “엄청난 양의 영양쌀을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포장하는 것은 주최측 입장에서 밤잠을 설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큰 일이었다”며 “하지만 사람의 염려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셔서 감사한 마음이다. 포장 행사는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팀워크를 통해 지체가 하나되고 마음을 집중해 봉사하는 귀한 훈련의 장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선교사만 선교한다?

이민자 평신도 다니엘을 사용하신 하나님



폴리신학교 박기호 교수가 빅미션 선교 컨퍼런스에서 특강을 전했다. 모든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

지난 26일 한인타운 내 솔고빌딩에서 열린 빅미션(BIC Mission) 컨퍼런스에 강사로 나선 박기호 교수(폴리신학교 선교학)는 “우리가 처한 일터를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선교 현장과 기독교의 진리가 분리될 수 없으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 교수는 다니엘 6장을 풀어가며, 이민자 평신도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교 도구로 쓰이고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다니엘은 안수받은 목사도,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잡혀간 포로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세계선교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송받은 선교사들만 선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이민하게 된 사람도 하나님의 선교 전략에 대단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 교수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선교사도 사용하시나, 비자발적인 환경에 처한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구약의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포로나 노예 신분으로 강제로 살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대표 여병현 목사는 “혼탁한 세상에서 벗어나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다른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사회성과 리더십도 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복음과 구원에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품게 하는 영성 캠프”라고도 했다. 현재 선착순 150명을 접수 중이다.

박 교수는 “많은 이민자들 안에 여

러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만,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다”면서 “다니엘은 부모가 지어 준 자기 이름조차 쓸 수 없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풀무 불에 던져지는 사형의 자리에 처하기도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기호 교수는 “오늘날 사회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점점 적대적이 되고 있다. 교회에 만연한 외형적 성공주의와 대형교회 목회를 출세로 여기는 목사, 교회 밖으로 나가면 돈과 이익을 위해 신앙을 접어 버리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등을 돌리고 조롱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다니엘의 영성이다.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결단의 소유자였고, 민첩한 마음을 가졌으며, 자기 일에 충성되어 탁월했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김으로 왕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자”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신앙은 신앙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는 식의 믿음은 세상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이 비자발적인 선교사를 복음 전파에 더 많이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은사를 갖춘 자”라고 말했다.

또 “부지런히 영성을 함양하고 교회 안과 밖에서 참된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성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빅미션은 두 번째 크리스천 경영 스쿨을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나성영락교회에서 5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

문의 : 323-496-1971

이인규 기자

사랑의띠선교회 창립 15주년 맞이해



사랑의띠선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했다.

사랑의띠선교회가 6월 26일 창립 15주년을 맞이해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에서는 하와이갈보리교회 원로 이면서 현재 가든그로브갈보리선교교회에서 시무 중인 김성희 목사가 시편 126편 5-6절을 본문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회”란 말씀을 전했다.

이후 카이로스 바디워십팀이 찬양을 드렸고 오는 7월 하순 한국 엘림장애인선교회 주최 산상부흥성회를 인

도하게 될 김천환 선교사를 위한 기도 시간도 있었다. 김천환 선교사가 대표로 있는 사랑의띠선교회는 한국 엘림장애인선교회의 LA지부이면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찬양과 기도 집회를 열고 있다.

주소 : 1300 W.Olympic Blvd. #200 Los Angeles, CA90015
전화 : 213-736-6625

김나래 기자

CEF 어린이 성경캠프

미국 어린이전도협회(CEF) 한인지회(대표 여병현 목사)가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4일간 샌프란시스코의 랜초 이마라 크리스천 캠프장에서 “어린이 새생활 성경캠프(New Life Bible Camp)”를 개최한다.

어린이 전문 선교기관인 어린이전도협회는 매년 방학 때마다 성경 캠프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의 주제는 “하나님을 알지”(Him: He is I am)다. 이 캠프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대표 여병현 목사는 “혼탁한 세상에서 벗어나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다른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사회성과 리더십도 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복음과 구원에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품게 하는 영성 캠프”라고도 했다. 현재 선착순 150명을 접수 중이다.

문의 : 213-382-1544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동명빌딩) T.323.737.8888

Fullerton 지부: 1701 W Orangewood Ave, Fullerton CA 92833 T.213.453.6624 (마리타호텔빌딩)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2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370
4개 구입시	\$23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45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와 보시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플러튼아가페교회 특별 성령 집회

- 인생이 무엇입니까?
-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 당신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디로 갈것입니까?



초대강사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담임 김요한 목사

· 세계선교: 러시아, 중국,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 국제오순절성령교회 한국지방회장



플러튼 아가페교회
담임 제이슨 전 목사

일시: 2014년 7월 17일 ~20일 (4일간)
시간: 7월 17일(목) 오후 7시 30분
 7월 18일(금) 오전 5시 30분 오후 7시 30분
 7월 19일(토) 오전 5시 30분 오후 7시 30분
 7월 20일(일) 오전 11시 오후 5시

장소: 2101 W. Crescent Ave #A Anaheim CA 92801
전화: 714-904-3450 / Jasonjeon135@hotmail.com

전도사 청빙 (찬양, 행정담당)

주관 플러튼아가페교회

후원 세계아가페선교교회, 다우니아가페교회

캘리포니아 동성애 치료 금지법에 연방대법원 침묵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에 관해 판결하지 않았던 연방 대법원이 올해는 동성애 치료 금지법에 침묵했다.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판결하지 않음에 따라, 하급심인 제9항소법원의 판결이 최종판결로 굳어지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성애 치료는 전면 불법으로 규정된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미성년자의 동성애 성향 치료를 금지하는 법 SB1172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치료를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없으며, 의사 역시 치료를 할 수 없다. 심지어는 청소년 스스로 치료를 받기 원하더라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해 놓았다. 이 법을 발의한 테드 리우 의원은 "동성애나 양성애는 병이나 결핍 상태, 장

애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후, "이런 성향을 고치려는 시도는 어떤 상황에도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SB48에 의거해 공립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고 동성애에 호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정신 상담은 허용하면서 반대로 치료는 원천봉쇄했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반발이 매우 거셌다.

한편, 이 법이 통과되자 "이 법은 의사들의 치료할 권리, 부모들의 양육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소송이 진행됐지만 판사들은 "의회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치료를 정신과 전문의들이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를 캘리포니아 주는 갖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부모의 자녀 양육권도 주가 합리적 판단에 의해 위협하다 규정한 의학적·정신의학적 치료를 제공할 권리를 포함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해 온 리버티 카운슬은 깊은 실망을 표현하며 "소아성애자들의 학대 때문에 원치 않은 동성애 성향을 갖게 되어 치료받고 있던 수천명의 어린이와 가족들로 인해 매우 슬프다"라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6월, 23대 13으로 상원을, 51대 22로 하원을 통과했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며 발효됐다. 그러나 곧 소송에 직면했고, 미국 내에서도 진보적이기로 유명한 제9순회 항소법원은 SB1172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에 제소한 태평양법률협회(PJI)의 브래드 다쿠스 대표는 "입법자들이 어린이의 권리보다 특정 집단으로부터의 받게 될 특혜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준형 기자

"IT와 신학 그 접촉점" 공학자와 신학자 한 자리 모인다

IT 문화가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급속히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공학자와 신학자가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는 포럼이 개최된다. 바로 <IT와 기독교 학술 포럼>이다.

이 포럼에서는 한동대학교의 김기석 교수와 건국대학교의 정갑주 교수, 풀러신학교의 이상훈 교수가 각각 특강, 발제, 응답을 맡게 된다. 행사는 7월 12일 오전 9시 30분, GMAN라디오(13921 Artesia Blvd. Cerritos CA90703)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이 주목받는 이유는 먼저 IT와 기독교의 문제를 보다 깊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계나 신학계에서 IT에 접근해 가는 관점은 "IT가 건강할 신앙을 방해한다"는 부정적 시각 내지는 "선교의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양분되는 경향이 주류였다.

그러나 이 포럼은 IT가 성도들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교회의 효율적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포럼에서 특강을 하게 될 김기석 교수는 "IT 전문가들과 신학자들의 만남의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윤식 목사의 저서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에 대한 리뷰를 주제로 발표한다. IT가 성도들의 삶에 미치게 될 영향력에 주목한 이 책을 공학자의 입장에서 분석함을 통해 신학과 공학의 접촉점을 찾겠다는 시도다.

정갑주 교수는 "IT는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신학자들이 IT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을 예정이며 이상훈 교수는 이에 대해 응답하게 된다. 이 포럼은 IT의 선악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양비론을



김기석 교수
김기석 교수는 삶의 현장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IT를 보다 정확히 알자는 데에 초점이 있다. 목회 현장, 선교 현장을 논함에 있어서 IT를 빼놓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김기석 교수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IT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컴퓨터 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삼성SDS의 책임연구원, 국회 정보통신보좌관을 역임했고 현재 한동대학교에서 전산전자공학을 가르치는 교수다. 신실한 기독교인인 그는 특별히 전문인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FMnC(Frontier Mission and Computer) 등을 설립해 IT를 통한 전문인 선교 사역을 해 왔으며, 각종 선교 포럼, 코스타 등에서 청년들과 전문인 선교의 비전을 나누어 왔다.

이번에 안식년 동안 풀러신학교의 방문교수 자격으로 LA에 체류 중인 그는 이미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IT와 기독교 학술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포럼은 제2회로, 신학자나 목회자 뿐 아니라 모든 성도와 IT선교 관심자들에게 개방된 행사다.

이 행사는 IT와 기독교 통섭 연구원(IT and Christianity Consilience Institute)이 주관하며 ITTA(IT Transformation Alliance, www.itta2000.org)와 SON Ministry/GMAN(www.igmanradio.com)이 공동주최 한다.

문의 : 김기석 교수, 714-345-3485, peterkim@handong.edu 김준형 기자

OC목사회-JAMA 공동으로 "예수 치유 건강 세미나"

오는 7월 14일 옐렌지카운티한인 목사회와 JAMA가 공동으로 "예수 치유 건강 세미나"를 갈보리선교회(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에서 개최한다.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강사는 신경과 및 뇌파 전문의인 배성호 목사다.

이 세미나는 성경적 관점에서 현대인들이 알아야 할 치유와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고질적 질환과 만성적 고통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병해야 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건강 관리에 관해서도 다룬다.

배성호 목사는 JAMA의 치유건강사역 디렉터이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토마스제퍼슨대학교 의과대학 임상교수를 역임했다. 연합감리교회 목사로 현재 텔라 웨어한인연합감리교회 부목사로 시무 중이다. 저서로는 두뇌 프라임(Living Well With a Thorn in the Flesh)이 있다.

이 행사는 목회자와 사모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비는 무료이고 점심이 제공된다.

문의 : 213-598-5323(강영수 목사) 김나래 기자



과거에 열렸던 예수 치유 건강 세미나

푸엔테힐스 현대, "목회자 특별 리스車" 크레딧 나빠도 OK

크레딧이 나쁜 한인 목회자들도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렸다.

북미 최대 규모 푸엔테힐스 현대자동차는 최근 중소형교회 한인 목회자들을 위한 차량 특별 리스 및 원가 세일을 시작했다.

이는 목회자 증명서 및 현재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엑센트, 엘란트라, 소나타 자동차를 제공하는 '패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상품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기 원하는 목회자는 현재 시무하는 교회 주보 및 소득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푸엔테힐스 현대자동차의 찰리 정(정영기) 매니저는 "대형교회에 비해 자동차 구입에 불편을 겪는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라며 "크레딧이 나쁜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다. 부득불하게 성도들에게 크레딧을 빌려줬다가 망가진 상황에 있는

목회자들이 안타까워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0년에 푸엔테힐스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으로 내놓아 많은 목회자들이 이용했다.

패스터 패키지는 현대 아메리카와 무관하며 푸엔테힐스 현대자동차가 독자적으로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 내놓은 서비스다. 따라서 타 딜러십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푸엔테힐스 현대자동차 총 부지는 6.8에이커에 최대 800여대의 자동차를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최신 정비장비를 갖춘 서비스 베이도 38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형 트럭부터 승용차까지 가능한 자동 세차 터널, 최첨단 바디샵, 주유대까지 보유하고 있어 고객을 위한 최상의 원스톱 풀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으며, 자체 용자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운영 중으로 많은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찰리 정 매니저
푸엔테힐스 현대자동차
연락처 : 213-276-8959
주소 :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토마스 맹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맹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빌립보서 3:1-1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빌립보서 3:1 종말로 나의 형제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순할례당을 삼가라 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5 내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13 형제들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할례가 구원의 표시는 아니다.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를 주실 대상으로서의 표시가 할례.

영적 체질 인생은 영적 가치관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의 내용과 같이 교회의 목자들은 항상 그 양떼들의 영적소망이 가장 안전한 가운데 영광스러운 결실을 이루어가게 하려고 애타는 심정으로 그 핵심적인 중요한 교훈을 자주 되풀이해서 일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 했는데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의 영터리 주장을 경계하고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말은 악한 행동을 일삼는 자들을 경계하며 어울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순할례당은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에 대한 논쟁으로 할례 자체의 의식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 남자가 태어나서 여드레가 되면 할례를 행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대상으로서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표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오랜 세월을 되풀이해

서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다짐해 오신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를 주실 대상으로서의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또 그 죄가 엄청난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가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간에 전혀 차별 없이 구원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순할례당을 멀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생각과 말과 행동, 사는 목적과 방법이 새롭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게 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감동체험도 주십니다. 그렇게 믿어질 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회개는 성령이 사기시는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면 하나님은 보혜사라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생각과 말과 행동, 사는 목적과 방법이 새롭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곧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하늘나라를 위하여 득이 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

오직 그리스도만 자기 심령에 채워야 한다.

바울은 인간적인 배경으로는 누구 못지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5-6절에서 그는 "내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훗날 하늘나라를 위하여 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을 화장실의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회개할 때 자기를 완전히 뒤집어 쏘아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기 심령에 채워지는 이 한 가지 은혜 충만한 신령한 소망의 기쁨을 목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인생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이런 변화가 없다면 교회를 헛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할 것.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면 힘쓸수록 핍박은 더 심해지게 되어 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義)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주어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소원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온전히 이른 것도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음박질하여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달음박질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이 원수마귀 소굴이기 때문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면 힘쓸수록 핍박은 더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껏 행한 일들은 잃어버리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말씀처럼 제대로 믿어지지 그렇게 믿을 생각이 없으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교회를 헛다니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순서는 미리 정하심(예정), 부르심(소명), 거듭남(중생), 회심(회개와 믿음), 칭의, 하나님의 자녀(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구원은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 한국교회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기적같은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여러 사람들을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의 구원의 여정이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밖에 있던 사람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에 진입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궁극적인 실현에 이르러 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라기 보다 논리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순서는 미리 정하심(예정), 부르심(소명), 거듭남(중생), 회심(회개와 믿음), 칭의(롬3:24), 하나님의 자녀(양자), 성화(롬6:4-6, 갈5:16-18), 성도의 견인(히3:14), 영화 순입니다.

이것은 모든 구원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과정도 필요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하고 영적 가치 기준이 예수님과 일치해서 영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조건들을 채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정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oles 4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학박사 전공과정)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고,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eongui@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관리집사님 모십니다



주인님께서 함께 동역하시길
관리집사님을 모십니다.

지원자격

세례교인, 미국 합법거주자, 운전면허 소지자
교회관리 유경험자

지원서류

이력서, 담임목사 추천서

서류 접수 마감

7월 20일 (당일 도착 :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인사위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www.kccroc.com 714.893.1652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죄책감과 정죄감 사이에서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대한민국 축구팀이 월드컵 본선에서 1승도 올리지 못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전력으로는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집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은 선수단의 귀국 방법을 다양하게 하자는 웃음을 자아내는 내용이었습니다. 골을 넣은 손흥민, 이근호, 김신욱은 비행기 1등석으로,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은 비행기 이코노미(Economy)석으로, 기성용과 구자철은 여객선으로, 정성룡은 어선으로, 수비진은 뗏목으로, 그리고 박주영과 홍명보 감독은 수영으로 돌아오게 하자는 것이지요. 실제로 선수단이 귀국할 때 엿을 던진 사람이 있다고 하니, 참으로 월드컵에 대한 열심과 기대는 재미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패자를 다루는 세상적인 법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괴롭고 낮 뜨거운 사람은 아마 분명히 선수들과 감독일 겁니다. 죄의식과 자책으로 가득 차서 그들은 비행기에서 내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세상은 냉혹합니다. 혹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실패자에게

냉혹한 것은 아닐까요? 자기편이 아니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너무도 냉혹하고 살벌하게 비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을 향하여 “무죄!”(innocent)라고 선언합니다. 사탄은 “너는 죽어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정죄감(condemnation)을 부채질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무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심각한 공로주의, 실적주의가 낳은 인과론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가차 없이 해고시킵니다. 그러나 예수

님은 우리의 공로를 따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너희는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범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정죄,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심령의 자유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내과 의사이자 정신과 의사인 폴 투르니에는 적당한 죄책감은 아이를 교육시키고, 스스로를 성숙시키는 조미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죄감은 파괴적입니다. 심각한 정죄감은 우리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책감이 정죄감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감사로 이끌어 줍니다. 복음 안에서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 기상도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역과 지극히 유한한 인간의 한계라는 괴리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좌절, 겸손, 아쉬움, 안타까움, 미안함 등이 어우러져 있는 마음이다.

물론 때론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순간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 미안함이 훨씬 더 많다. 연초부터 비전 센터 건축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 나르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체험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건축을 결단하긴 했지만 일단 당회가 오랜 연구와 기도 끝에 결단을 내리자 온 교회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교회 내의 모든

절차가 압도적인 지지 하에 일사천리로 끝나고 우려했던 현금도 성도들이 너무나 기쁘게 동참을 해 주었고 하우스 하나를 처분하는 일도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기쁘고 감사했다. 한 주 한 주가 쾌청한 날씨처럼 은혜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또 지난 몇 주간은 웬지 모르게 다시 목회자의 본래 자리인 겸손, 아쉬움, 미안함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많았던 시기였다. 영적 기상도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뀐 듯했다.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은혜의 자리에 영원토록 머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은혜의 산에서 현실로 내려가야 했듯이 목회자도 목회의 현실로 다시 내려와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죄송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다. 그러자 또 다시 맑은 하늘이 보인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목회의 기상도에도 고기압과 저기압을 적절히 배합하셔서 목회자든 성도든 날마다 십자가를 더욱 더 간절히 소망하게 하신다. 참 신비하고 오묘하신 주님이시다.

집중의 비밀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이 이 시대의 맹점이다. ‘팔방미인.’ 좋은 말이다. 방대한 지식을 소유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 전과목에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다는 것, 칭찬해도 좋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그런 것을 원해서도 안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말인가? 비밀은 앞서 말했듯이 제거(elimination)다. 우리의 삶에 과한 것(excess)이 많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너무 많이 소비/섭취(consume)하면 해가 되는 것같이 과도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너무 TV를 많이 보면, 그것을 줄여야 한다. 너무 게임을 많이 하면 줄여야 한다. 너무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다면 아예 전원

을 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필자는 저녁 6시 이후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 연습을 수년간 해 보았는데,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음을 “증인”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오늘 해야 할 일”이란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수십 가지 일이 생각나더라도, 꼭 오늘 해야 할 일과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분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앤디 스탠리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2)자신의 탤런트 중심으로 살아가라. (3)남이 더 잘하는 것은 남이 하도록 하라. 가능하면 그런 일은 위임하라. (4)잘 못하는 일은 점점 줄여가라. (5)항상 지속하며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라.

정말 집중을 더 잘하고 더 생산적인 사람, 학생, 회사원,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제거하고, 정리하고, 줄이는 연습을 시작하라. 이미 무리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지우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정신적 피로(fat)이 아닌 이게 문제다.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에 초점을 맞추자.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모든 것에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자. 모든 면에 완벽주의자가 아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기독교 교육의 대가 하워드 헨드릭스 교수는 “집중의 비밀은 제거”라 말했다. 이 발언이 몇 년 전 출간된 앤디 스탠리의 책 “다음 세대 리더(Next Generation Leader)”에도 실렸던 것이 기억난다. 헨드릭스 교수의 발언은 명언이다. 정말 바쁜 삶 가운데 시간 관리 및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데에 꼭 필요한 조언이다.

1971년, 셀폰이나 이메일, 또는 인터넷이나 무선 단말기가 등장하기 전, 노벨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 교수는 “정보의 풍부함이 집중력 결핍을 발생시킨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가 소비하게 하는 것은 수신자의 관심이다”라고 말했다. 즉, 정보는 무료가 아니며, 지불하는 돈보다 소비자의 시간과 집중력을 빼앗음으로 사용료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예리한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집중력 결핍자(ADD)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불안함을 칭하는 새로운 단어 노모포비아(nomophobia)가 등장한 것 아닌가?

우리 모두 집중력이 강해지길 원한다. 남보다 조금 더 어떤 일이나 사물에 초점을 잘 맞추길 바란다. 그러나, 요즘같이 정보 홍수시대에는 모르는 게 있으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다.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페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나서 암수치 1.36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박(72세, 엘에이) 213-268-8381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벽.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발작을 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세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뇨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도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과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봉(52세, 가디나)
심한 알러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 3달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변화와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선(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체장암 말기	60세 중년에 가장 힘든다는 체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체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허구적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증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락(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푹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창도 들어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숙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도 되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11

안녕하세요. 건강칼럼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채식과 육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분들도 알고 계시는 상식처럼 육식보다는 채식이 좋다는것은 자명한 일인데, 왜 채식이 좋을까요? 다니엘서 1장10절에서 16절까지를 살펴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것과 너희 마실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하것을 그로 보시게 할것이 무엇이나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과 물을 주어 먹게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후에 당신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을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좇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야 보인더라, 그러므로 감동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배경과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사람이였는데, 유다가 바벨론 국가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포로중에서 다방면에서 뛰어난 소년들을 찾아서 왕궁에서 시중을 들게 하려고 했는데, 뽑힌 여러사람 중에서 다니엘도 뽑히게 되었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3년간 왕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되었고, 또한 용모단정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이 이들을 관리하게 된것이고, 이에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먹게 하려고 한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채식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더 좋은 건강상태를 환관장에게 보여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채식

을 하게되면 피가 알칼리성이 되고, 육식을 하게되면 피가 산성이 됩니다. 더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의 흐름이 알칼리 일때는 순환 잘되고, 산성 일때는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채식주의자 였는지도 모겠습니만, 오래동안 장수를 한것은 틀림 없는것 같습니다.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 왔을때가 소년이라고 했으니, 14살은 넘었을것 같은데, 바벨론이 바사제국에게 망하게 되었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두국가에서 약 70년간 고위관직과 총리를 한것을 보아서는 꽤 건강했고 장수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달라고 했던 채식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채모임" 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식물의 씨앗이나 콩과류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또한 곡식과 채소의 씨앗을 말하기도 하는데, 신기하게도 창세기 1장29절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어 떻습니까? 다니엘처럼 채식을 선호하면서 건강을 지키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 첫째는 고기를 잘 먹고는 도저히 살수 없을것 같고, 두번째로는 채식만 한다고 하여도 오늘날 곡식을 만드는 땅이 공해,산성비등등으로 인하여 좋은 식량을 만들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대로 만든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M3를 드시면 3일 이내로 정말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19절중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건강하라 강건하라" 무슨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M3 유태인 특수영양제 M3,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기적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료건강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M3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 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 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	201.953.0022
시온약국	213.382.6485	LA별론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버지니아	703.684.9199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별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세크라멘토, 아리조나	602.332.6492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에스약국	323.733.7788	벨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렉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하와이 총판	808.359.3376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팍 종로로리키구	714.530.8275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랜하이츠	626.912.5727	플로리다	954.985.3928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캐나다			604.872.1669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요15:7)

한국교회의 눈물 ‘회초리기도대성회’

참석자들 ‘자책초달’ 감행하며, 회개 촉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회초리기도대성회’가 진행되고 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지만,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여러 갈래로 분열시키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교계의 장이 되고, 으뜸이 되는 자리를 얻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의 눈물 - 회초리기도대성회”가 ‘나부터 회개합니다’라는 주제로 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와 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는 기도대성회의 취지문을 통해 “일부 목회자들의 헤이해진 도덕성과 윤리의식은 성도가 염려하는 한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그리스도의 섬김과 낮아짐, 비움과 희생,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외쳐야 할 교회는 성공의 패러다임에 빠져 변질됐다”고 회개했다.

또 “특히 연합과 화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연합기관이 최근 몇 년 동안 분란에 휩싸이고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또 다른 연합기구가 설립됐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마치 유행처럼 돼버린 교회 분쟁 또한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한탄했다.

더불어 “교회 내 이권과 감정 문제로 세상 법정과 언론까지 이용해 서로를 공격하는가 하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허물을 가리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 주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교회의 성장과 선교를 막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고백했다.

이날 김진호 목사는 ‘박영콜이 주는 교훈(요나서 4:10~11)’이라는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에 엄청난 죄악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때”라며 “요나의 박영콜 같은 세상의 유한되고 제한된 존재를 위해 몰두하며 웃고 우는 모습이 한국교회와 교계 지도자에게 없는가”라고 한국교회의 자성과 회개를 촉구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박영콜 같은 물질과 명예, 세속적인 것을 위해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않는가”라며 “총회장과 감독 자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통회와 자복을 강조했다.

또 김 목사는 “솔직히 말해, 한국교회가 수많은 교파로 갈라진 것은 이권과 고집, 욕심 때문이 아니겠냐”며 “박영콜 같은 물질, 명예,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회자들은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온 국민이 비통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도덕과 무책임에 대한 경종이며, 나아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자만에 빠졌던 한국교회를 향한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일 것”이라고 회개했다.

또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 부정과 부패, 습관처럼 반복되는 분열과 분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은 침몰하는 배와 다를 바 없다”고 회개했다. 회개기도 후 광역시·도대표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초리로 자기를 때려 죄악을 회개하는 ‘자책초달’을 감행하며, 한국교회 갱신을 부르짖었다. ‘자책초달’ 후 참석자들은 회복과 치유의 찬양을 부르며, “세상 사람들의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한국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간절히 소망했다.

이동윤 기자

서울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회

박원순 서울시장 “한국교회, 민족과 사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버팀목 돼줬다”

이른 아침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 각 지역 구청장, 교계지도자 등 각계 각층이 함께 모여,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회’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며 새날을 향한 소망이 넘치길 기도했다. 또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이를 극복해 안정과 회복, 경제 성장을 이뤄 통일시대를 열기를 기원했다.

이날 기도회 1부 예배에서 ‘먼저 구할 것’(마6:31-33)을 주제로 설교한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는 “이 세상 소식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며, 절망이 넘쳐나고 있다”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긍정의 신앙으로 거룩한 꿈을 보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목사는 “기독교인들은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 꿈과 희망을 얘기해야 한다”며 “이제 우리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들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님의 통치는 참된 평화와 자유가 있는 곳”이라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선한 영향력 끼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우리 주위에 힘들고 고통스런 이웃이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보지 못하고 소유하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라며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철저히 낮아져 겸손하게 활벗고 굽주린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자”라고 권면했다.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서울특별시)은 “오늘 특히 저희 서울시와 저에 대해 축하의 기도와 가르침을 많이 주셨다”며 “통합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반듯한 서울시가 되도록

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각 분야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며, 특히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줬다”며 “근본적 성찰을 통해 원칙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박 시장은 “시민이 곧 서울이고 대한민국이기에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힘쓰겠다”면서 “한국교회는 민족과 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버팀목과 등불이 돼줬기에,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임원순 목사(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 이사장)는 기도회 대화사를 통해 “오늘 서울시장님과 각 구청장님들과 교계 지도자 등이 함께 조찬 기도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며 “국민에게 꿈과 비전을 제공하며,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기 위해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 목사는 “항상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위기 극복에 중심이 됐던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나라를 위해 헌신적 역할을 할 때”라고 당부했다.

임 목사는 “서민경제가 어렵고 북한 핵실험과 도발로 안보도 위중한 상황이며, 안전불감증과 부정부패 및 도덕성의 추락 또한 그동안 너무 오래 방치해 왔다”면서 “기도만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이날 기도회에서는 박종철 목사(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 대표회장)와 한동철 목사(강동구교회연합회 실무회장), 한은수 목사(예수교대한감리회예수레협의회 감독)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서울특별시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

아울러 이혜훈 위원(새누리당 최고위원), 강영선 목사(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진호 목사(전 기감 감독회장), 양병희 목사(영안교회 담임), 이선 교수(실천신대 공동원장), 김진욱 목사(대한민국국민연합 상임회장) 등이 격려사 및 축사를 전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 선교사 자녀 초·중·고 본국 연합 수련회 열려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 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이하 KOMKED)이 주최한 ‘제16회 한국 선교사 자녀(MK) 초·중·고 본국 수련회’가 7일 오전 10시 개최예배를 시작으로 초등부는 5박 6일간, 중등부는 11박 12일간 새중앙교회(담임 박종식 목사) 대부도수양관에서 열렸다.

선교교회(담임 한용만 목사)에서 진행된 개최예배에서 ‘MK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한용만 목사(KOMKED 이사장)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이라며 “여러분의 나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쇠고랑에 묶인 채 여러 날을 끌려다니며,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고생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부모님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여러 낯설고 힘든 상황을 겪을 것”이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큰 인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전했다.

KOMKED 한국어 교재개발분과위원장 맡고 있는 최용기 교수는 “그동안 한국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교재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약속 때문이었다”며 “한국선교사자녀개발원을 통해 이 수련회와 관계를 맺은 지 12년이 됐다. 간접적이지만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몽골과 인도를 방문하여 선교사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가졌으며, 그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았다. 며칠 전에는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분을 만나 그곳의 상

황을 듣기도 했다. 이분들은 모두 만족하고 행복해 보였다. 저도 만날 때마다 늘 행복했다”고 했다.

그는 “이제 세계가 한국 문화와 한국을 잘 알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며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과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여러가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욱 강한 믿음으로 굳센 신앙 생활을 해 나가시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행사의 전체적인 진행을 맡은 김신자 위원장(KOMKED 사무총장, 전 나이지리아 선교사)은 “평생에서 생명의 천국 씨앗을 심느라 수고하신 학부모 선교사님들께 위로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 MK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실례는 마음으로 몇 년 만에 고국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선교사님들과 선교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도울 수 있도록 채워주시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창조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계관’을 주제로 오전 성경공부와 저녁 부흥회 등의 영성 훈련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마련됐으며,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울산현대중공업, 불국사 포석적, 경주 국립박물관, 고서동굴, 남산타워, 극동방송, 서울 정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선교사 묘지 등을 방문하는 국토기행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강해진 기자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

매직 스테이트 \$100 up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그리스도연합교회, 동성애자 행사 후원

미국 주류 개신교단 중 최초로 공식 스폰서 나서



미국의 그리스도연합교회(UCC)가 오는 8월 열리는 동성애자 스포츠 행사를 후원한다고 밝혔다. ©UCC

미국 그리스도연합교회(UCC)가 동성애자들의 행사를 후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주류 개신교단 가운데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는 8월 9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게이 게임스(Gay Games)'는 쉽게 말해 성소수자(LGBT)들의 올림픽 게임과 같은 스포츠 행사로 4년에 한 번 개최되며, 올해는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8월 9일부터 1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UCC는 올해 이 행사의 공식 스폰서가 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UCC는 주류 개신교단 가운데서도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일찍부터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목회자를 허용해 왔다.

'게이 게임스'가 개최될 클리블랜드는 UCC의 교단 본부가 소재한 곳으로, UCC는 총 3만 명이 참여하는 이 행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연대감을 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UCC가 발표한 성명에서 교단의 첫 동성애자 총회 임원인 J. 버넷 게스 목사는 "우리 교단이 사회 정의의 문제에 오래 헌신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게이 게임스'의 주요 스폰서로서 섬기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진보주의 기독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데서 자부심을 느끼며 우리가 이 행사에 참여하는 선수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관람객들 모두에게 열렬한 환영의

의사를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UCC가 이번에 '게이 게임스'를 후원하는 것은 교단이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사회 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또한 UCC 내 5천여 교회 가운데서 약 3분의 1에 달하는 1천5백여 교회들이 이러한 후원에 찬성하면서, 이를 위해 교회 차원에서 성금을 모아 기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UCC는 동성애자들의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고, 동성애자의 성직 임명의 문을 연 최초의 미국 주류 개신교단이다. 이에 더해 UCC는 또 다른 최초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가장 처음 동성애자 행사를 공식 후원한 교단으로서다.

한편, UCC 외에도 이번 행사에는 18개 종교 기관이 파트너로 협력한다. 이 가운데 총 8개가 기독교 교단으로, 미국성공회(EC), 연합감리교(UMC), 유니테리언교회(UUC) 등이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게이 게임스'는 1982년에 미국 올림픽 영웅인 탐 위델에 의해 성소수자들이 스포츠 경기에 차별 없이 출전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총 36개 종목에 수천 명 규모의 성소수자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축제와 문화 행사, 다종교 예배 등이 개최 기간에 진행된다.

손현정 기자

크리스천 남성 50% 여성 20% 포르노에 중독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소재한 대형교회인 뉴스프링교회의 페리 노블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포르노 중독을 고백하며 해법을 제시했다.

14세 때 포르노를 보기 시작한 페리 노블(Perry Noble) 목사는 포르노 중독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의심했다고 고백했다. 다행히 그는, 육체적 욕구에 자신을 계속 방기하면 자신의 결혼생활과 사역이 무너질 것임을 깨닫고 이 중독을 극복할 방법을 찾았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앤더슨(Anderson)에 위치한 뉴스프링교회(NewSpring Church) 노블 담임목사는 블로그를 통해, 처음에는 포르노가 그다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점차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포르노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죄'였다. 갈등은 실재했고, 정서적, 영적으로 고통받았다. 나는 나의 구원을 의심했다. 사역을 그만 둘 뻔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했고, 이 중독을 어찌할 수 없었다."

대형교회 목사가 이러한 중독에 빠진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 만큼이나, 포르노가 교회 내에서도 널리 퍼져있는 문제나 거의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충격적이다. 포르노 감시기구 커버넌트 아이즈(Covenant Eyes)에 따르면, 크리스천 남성 50퍼센트와 크리스천 여성 20퍼센트가 포르노에 중독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놀랍게도, 자신을 근본주의자라로 여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한다고 답한 사람들보다 포르노를 더 많이 보는 편이었다.

노블은 자신의 친한 친구이자 뉴스프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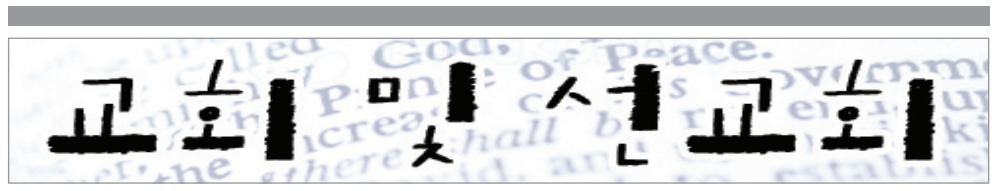
교회의 교육목사인 클레이튼 킹(Clayton King)이 자신을 도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와 친구 중 한 명이 포르노를 보면, 상대방에게 1천 달러 수표를 써 주도록 약속했다. 그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이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은 유혹을 받을 때 자신의 수표책을 떠올리며 그 유혹을 막았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유혹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을 멀리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예수님은 오른쪽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버리라고 말했다. '컴퓨터가 당신을 죄짓게 하면, 그것을 없애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약 5년 동안, 나는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집에서 인터넷을 없앴다"고 썼다. 노블은 남성 혼자 여행하지 말라고도 말했다. 여행 중 유혹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르노는 사생활 속에 늘 도사리고 있으며, 포르노에 중독된 교인들은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 노블은 결혼한 남성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이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노블은 그 무엇보다도 여성을 건전한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 이 깨달음을 얻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 포르노 중독 극복에 관한 정보 :

www.xxxchurch.com/men/archive

한 주디 기자



LA 지역

한현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8: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45 심양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찬양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철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김연발, 미음, 김,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박승부 장로 1-671 수료생 배출, 현재 7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신교사 양성
-역물이나 기구없이 손만으로 각종병치료를 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점부 베네딕트 전방)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미디어, 임산부 미디어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후 찬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현연성 담임목사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 F.(323)932-0788 / kuhnyho@hanmail.net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281-1196 E. isaacdew@hotmail.com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j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 (월-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초.진신의 흠뻑, 바른교회인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회
텔레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오전 6:0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6층 체플름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하고, 이민2세를 섬기며, 이민2세대가 중심이 되어 선교와 영혼을 섬기는 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323)930-0011, (323)935-0011 / www.LAsarang.com

교회혁신교회

LA동부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령침례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박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연합세례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훈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양성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안병권** 담임목사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영어예배(EM)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ganachurch.homepage.com

정성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영어예배(EM)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일양성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양성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21)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민사형통합니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양성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9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례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ay-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KM) 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양성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예배 오후 12:00

벤추라 감리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세리토스채플) **최희**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세리토스채플)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벨리채플)
목요양성집회 오후 7:45 (다우니 채플)
금요일양성집회 오후 7:45 (벨리채플)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십) 금요일양성예배 오후 8:00
오후 12:00 (분당)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곽덕근** 담임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 신임회장 전희수 목사 선출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정기총회가 스토니포인트센터에서 개최됐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제6회 정기총회가 23일 오후 2시 스토니포인트센터에서 개최, 신임회장직에 직전 부회장 전희수 목사(기쁨과영광교회)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직전 회장은 이미선 목사로서 2012년부터 2년간 회장을 역임했다.

부회장은 장경혜 목사가 현장에서 공천 받아 만장일치를 얻어 당선됐으며, 신임감사는 김경자 목사, 이주실 목사가 선출됐다. 회장 이취임식은 7월 28일 갖는다.

신임회장직에 선출된 전희수 목사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과 소명을 받고 지난 30여 년간 여성 목회자의 길을 달려왔다"면서 "저의 짧은 소견으로 맡겨 주신 교회 사역 외에 연합 사역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지만 지난 5회기 동안 목회분과위원장, 회계, 부회장으로 본 연합회를 섬기면서 연합 사역, 특별히 여성목회자 연합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협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전희수 목사는 "지난 5회기 동안 동역자들의 헌신과 수고 속에 세워져가고 있는 여성목회자협의회를 어떤 자세로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 봤다"면서 "먼저는 회원들의 영성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겠으며, 두 번째로 회원 상호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해져 사회와 교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섬기며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희수 목사는 "21세기 여성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성 목회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느낀다"면서 "성령의 임재가 강한 예배와 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비전을 갖고 자신감 있는 여성목회자로서 발전해 나가는 미주여성목회자협의회와 회원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섬기겠다"고 말했다. 또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여성 목회자들을 세워주며 성령으로 하나되는 연합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직전회장인 이미선 목사는 "세월이 유수하고 있다는 말처럼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전적으로 헌신했던 임원 및 분과위원장, 각 지역 협동총무,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면서 "회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회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열심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회원들이 되라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미선 목사가 회장을 역임하는 기간 중 여성목회자협의회는 플로리다 로큰데일 지역 3박4일 노숙자 단기선교 △7개 구호단체 기부금 전달 △여성목회자의날 장학금 전달 △사랑캐스터 뮤지컬 단체관람 등의 주요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전희수 목사의 사회로 오병의 목사 대표기도, 박도보라 목사 성경봉독, 이미선 목사 말씀, 박연숙 목사 헌금기도, 김금옥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미선 목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뵙아주시는 사역자다. 흠뻑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면서 "세상의 전문가들도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 가듯 우리 목회자들도 주어로 묵상하며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의 무리들을 잘 이끌고 사명을 감당하자"고 권면했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정기총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첫날 저녁 만찬 이후에는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과 함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며 웃음 속에서 친교시간을 보냈다.

이 시간 후에는 차갑신 목사(시흥순복음교회)의 연합 컨퍼런스 특강이 이어져 은혜가 더했다.

김대원 기자

뉴저지교협, 호산나대회 앞두고 부회장에 이병준 목사 선출



뉴저지교협이 제10차 월례회에서 공식적이었던 부회장에 이병준 목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병준 목사, 세 번째가 회장 김동욱 목사.

뉴저지교협이 가장 큰 연중행사인 호산나복음화대성회를 앞두고 지난 25일 뉴저지만나교회에서 제10차 월례회를 열고 회기 초부터 공식적이었던 부회장에 이병준 목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병준 목사는 지난 5월말까지 뉴저지목사회 제4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에 뉴저지교협은 이 목사가 뉴저지 주요단체를 이끌어 온 경험과 역량으로 뉴저지교협을 섬겨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호산나복음화대성회는 오는 7월 11일(금)~13일(주일)까지 Dwight Morrow High School(274 Knickerbocker Rd, Englewood, NJ 07631)에서 개최되며 대회 주강사는 필라디델피아 호성기 목사다.

같은 장소에서 병행해서 열리는 호산나 어린이복음화대성회(Hosanna Kid's Revival) 강사는 Kathy Kim 전도사(한빛지구촌교회)다.

특히 지난 해까지 호산나전도대회라는 명칭으로 개최돼 온 것을 올해는 호산나복음화대성회로 명칭을 변경해 새롭게 진행한다.

뉴저지교협은 지난 19일 호산나복음화대성회를 위한 첫 준비모임을 뉴저지

만나교회에서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준비모임에는 뉴저지교협 임원 외에도 호산나복음화대성회 순서자들도 함께 참여해 성회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기도했다.

호산나 어린이복음화대성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영어집회로 진행되기에 한인 어린이는 물론 다민족 어린이도 참여가 가능해 주최측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와 함께 뉴저지교협은 현재 교협 사무실 기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뉴저지교협은 21일 뉴저지 Hamberger에 위치한 Great Gorge 골프장에서 '뉴저지교협 사무실 마련 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약 70여 명의 참가자들이 등록했으며 모금된 전액은 '뉴저지교협 사무실 마련'에 사용된다.

행사는 회장 김동욱 목사(뉴저지만나교회)의 인사말과 총무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의 광고, 조용복 프로골퍼(필그림교회)의 경기 진행 안내 이후 샷건 방식으로 경기가 치러졌다.

김대원 기자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 제33차 총회 성료

신임 총회장에 위성교 목사, 제1부회장에 김상민 목사 선출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 제33차 총회 (사진 침례신문 제공)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총회장 황준석 목사, 총무 엄종오 목사)의 제33차 정기총회가 “부르심의 꽃대를 향하여”란 주제로 지난 6월 23일(월)부터 26일(목)까지 워싱턴D.C. 딜레스 공항 인근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

제1부총회장 위성교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개회예배에서 김승호 직전총회장은 “복음의 일꾼은 정직의 자세가 있어야 하며 정직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천국소망의 신앙을 가진 복음적 일꾼의 자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음의 일꾼이 가져야 할 목표는 교회요, 교단이다. 침례교단은 개교회 중심이지만 우리가 연합하지 않는다면 침례교의 특징적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의 지체인 것을 기억해서 서로 화합하고,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전한 한국의 김대현 총회장(기독교한국침례회)은 “3천 교회, 80만 성도를 대신해서 33차 총회를 축하한다. 지금 한국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기독교복음침례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구원파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 전파의 기회로 만드셨다. 왜냐하면 가짜가 있으니 진짜를 알아봐 주는 것 같아서인데 침례교가 보석같이 귀하기 때문에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총회가 특히 감사하는 것은 미국총회와 한국총회가 하와이에서 선교 사대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다는 사실이다. 황준석 총회장이 수고를 많이 했다. 많은 분들이 왜 이제야 이런 모임이 있었느냐고 물으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전해 왔다. 이번 제33차 총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서 가정마다 좋은 일을 경험하고, 교회마다 부흥하기를 축하하며 축복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축사에서 라이프웨이의 헬름

김 앤더슨 기자

드 핀토(Harold Pinto) 목사는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를 놀라게 사용하고 계신 것에 대해 축하한다. 앞으로 교육부와 제휴를 맺어 우리 이민교회를 위해 교재를 제작하는 것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라며 한국 침례교회와의 공조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개회예배 이후 이어진 축하와 소개의 시간, 황준석 총회장은 직전총회장 김승호 목사(산돌교회)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20년 근속 목회자부부에게 공로패와 선물을 증정했다.

이번 총회에 새롭게 생긴 순서가 많은데 특별히 총회에 가장 많은 협동비를 낸 세 교회에 감사패를 수여해 눈길을 끌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특별 초청강사로 탈북자 출신의 주순영 선교사가 두 차례에 걸쳐, 탈북의 어려움 속에서 만나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간증했다. 주순영 선교사는 김일성의 아내를 닮아 제1호 공훈배우로 북한에서 활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협에 빠져 여러 번 탈북을 시도했으며 그 어려운 과정 중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간증으로 은혜를 선사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의 정기총회 회무에서는 회소 통과에서부터 난항이 이어졌다. 헌법수개정안이 상정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 결국 절차상 문제(3개월 전에 상정하지 못함)가 된 헌법수개정안은 회소에서 제의가 돼, 관심을 모았던 헌법수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총 5명의 후보가 입후보해서 치열한 경쟁이 됐던 선거전에서는 3명이 입후보한 총회장 선거에서 위성교 목사(뉴라이프교회)가 당선되고, 2명이 입후보한 제1부회장 선거에서는 김상민 목사(웨이트빌제일교회)가 당선됐다.

이 외에도 제2부회장에는 최영이 목사(도버한인교회), 서기에는 김태두 목사(그린우드한인교회), 회계에는 김경도 목사(루이스빌한인제일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제일장로교회 차세대, 단기선교 ‘활발’

EM과 KM 각각 콜롬비아와 도미니카로



제일장로교회 유스 단기선교팀

애틀랜타에 위치한 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 유스, EM, KM 청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단기선교에 한창이다. 이들은 이번 단기선교를 위해 6개월 전부터 여러 준비를 해왔다.

먼저 유스 단기선교팀은 지난 6월 28일(토)부터 7월 5일(토)까지 노스캐롤라이나로 선교를 다녀왔다. 유스 단기선교팀은 미국교회 교인들과 함께 다운타운 지역을 돌아다니며 노방전도에 힘을 다했으며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웃을 위한 구제선교도 실시했다.

EM 단기선교팀은 7월 18일(금)부터 27일(주일)까지 콜롬비아 단기선교를 다녀

온다. 일본 선교를 계속해 오다 작년부터 콜롬비아를 찾아온 EM 단기선교팀은 현지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VBS를 개최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멕시코, 루마니아, 도미니카, 아이티, 온두라스 등 다양한 곳을 다녀온 바 있는 KM 단기선교팀은 올해 7월 28일(월)부터 8월 4일(월)까지 도미니카를 다녀온다.

KM 단기선교팀은 VBS와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현지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김 앤더슨 기자

O.C./앨버틴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30
경애인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 11:00
한여래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업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이는 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a)
T.(562)691-0691 / F.(562)691-0698 / nachimbans.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찬양)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Youth 예배 오전10:3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기록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규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게시목)
금요일 오후 7시(게시목 7교회)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Harbor + South)
T. (949)285-0619 / E. obchurch7@gmail.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요예배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www.socalsamsung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분당)
2부예배 오전 10:00(분당)
3부예배 오전 12:30(FC제물)

EM예배 오전 10:00(FC제물)
오전 12:30(분당)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00(토)

김민재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아예배 오후 12:45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주요예배 오전 6:0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교외 사무실)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아예배(수) 오후 7:30
성령집회(매월 둘째 금) 오후 7:30

김상도 목사

앨버틴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T. (949)857-9425 / F.(949)857-9242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오전 7:30
오전 9: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전 7:30

지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강림으로 규약정립 영구확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감, 생애관, 사명을 강요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과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김상도 목사

앨버틴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949) 305-3951

주일부예배 오전 8:15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한여래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EM예배 오후 1:00(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주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말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탐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월일 오전 6:3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한기홍 담임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를 깨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령예배 오후 2: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월요 중보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침야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670-6700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670-670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캐리어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세계 최초의 캐거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Medical Product Name : Mirapharm-22
FDA NDC Number : 58912-2001-1

Duns Number : 688502046
Pin Number : cGfFh5Ec

위 정보들은 미국 FDA로부터 정식으로 부여받은 것들로
제품 제조허가 번호, 제품명, 국제사업자 등록번호와 공장 설립허가 번호들입니다.

이와 같이 2013년 6월 12일 미라팜-22는 100% 천연유기물질로써 미FDA 등록 연구소에서 행해진 AOAC 976, 26GC, EPA 200.7, CDFA 1991 PUB, pH테스트, 유기염소의 살충제 & PCBs (안전테스트), 17 중금속, 영양 함유물과 라벨링에 근거하여 식품으로 안전함을 확인 증명 받았으며, 그 이후 2013년 8월 1 일에 미FDA에 일반의약품 [NDC (OTC DRUG)] 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품 제조허가번호와 공장 설립허가번호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국제사업자등록번호까지 획득해 합법적으로 제조와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기적의 약 (Miracle Pharmacy) 미라팜-22 Mirapharm-22



미라팜-22의 일반의약품 등록 합법성은 미국 FDA의 아래
사이트를 가셔서 상표명이나 NDC번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accessdata.fda.gov/scripts/cder/ndc/dsp_searchresult.cfm



미국 FDA NDC 일반의약품 등록 인증서
(FDA NDC REGISTRATION CERTIFICATE)
(아시아 본부 발행)

기능성 식품 안정성 테스트 확인 인증서
(CERTIFICATE OF CONFIRMATION
FOR TEST PARAMETERS)

90캡슐 / 한 달분 / 한 병
Made in USA

22세기형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100% 천연 유기물질로 만들었으며 24년간의 연구와 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UNAPPROVED DRUG OTHER란 Marketing Category Name은 승인이 안 된 의약품이란 뜻이 아니라 FDA에 이미 등재된 약재
목록에는 없는 신물질을 사용하여 만든 다른(OTHER) 의약품이란 의미이며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져 FDA에 등록된 의약품입니다.



FDA 확인해보세요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 로 검색

- ◆ 14년간의 연구와 10년간의 임상 끝에 100% 천연유기물질이면서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된 미라팜-22
- ◆ FDA에서 본 제품의 독성 및 기타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미국 FDA에 의해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 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 ◆ 친환경 천연유기물질을 생명공학 공법으로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면역 증강, 각종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치료제로 등록
- ◆ 100% 천연유기물질 소재로 만들었기에 부작용의 염려가 없고 각종 난치병에도 많은 효험을 나타냄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일반의약품 NDC(OTC Drug)로 인증 등록된 첨단의약품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복용 후 5일 - 11/5/2013 복용 후 25일 - 11/25/2013 복용 후 77일 - 1/16/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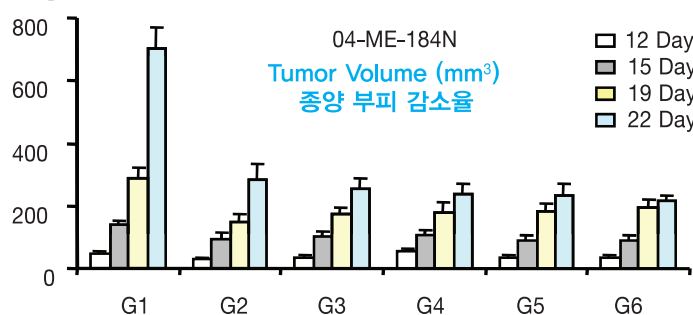


복용전

복용후 99일

미라팜-22의 암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최종일 - 투여 22일째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째 (최종일)	704.6 ± 67.2	285.6 ± 50.6	251.9 ± 36.3	235.3 ± 34.6	232.1 ± 38.5	214.2 ± 20.5
22일째의 억제률 %	0	59.5	64.3	66.6	67.1	69.6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암 부위 감소를 자랑하는 천연 치료제인 미라팜-22의 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곧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의 도표들은 각각 두 차례의 FDA 인가된 비임상 테스트를 거쳐 나온 것이며 자세한 데이터(64페이지)를 원하시면 본사를 방문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A. 본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가짜 크리스천 아닌 성령 받은 크리스천 돼라”

주님의영광교회서 남가주 교회연합 복음화 대성회 열려



주님의영광교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부흥사 이태희 목사를 초청한 가운데 남가주 복음화 대성회가 개최됐다. 이태희 목사는 집회 내내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령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라고 격려했다.

지난 27일(금)부터 29일(토)까지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변하여 새사람 되리라!”는 주제로 남가주 지역 교회연합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다.

남가주 지역 교회가 함께 모인 가운데, 이태희 목사(성복교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남가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날, 이태희 목사는 사도들의 첫 번째 기적, 날 때부터 앓은뱅이 된 자를 일으킨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랐다.

“기적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 나가면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치유 사건, 앓은뱅이가 일어난다던가, 장님이 눈을 뜬다거나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다.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다.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버지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 하셨다. 그런 기적은 예수님 때만 있었지 지금 어떻게 가능하냐고 되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는 오늘날 교회 안에 다원주의와 자유주의가 스며들고 있다며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요새 성경을 안 믿는 목사가 평신도보다 더 많

다. 프린스턴 대학의 한 박사는 ‘기독교 밖에도 약간의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선포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을 100퍼센트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또 이름뿐인 크리스천이 아닌 성령을 받은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문에 보면, 앓은뱅이에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말한다. 부흥회는 찬송이나 퍼붓는 게 아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고, 저주 받을 땅을 축복 받을 땅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말한다.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확신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8:14),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러운 자니라’(고후13:5)라고 했다. 한국 겉핥기에서 실시한 종교의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개신교 목사 중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35퍼센트였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가짜다.”

이어서 니고데모의 예를 통해, 진정한 구원은 어떤 신분, 종교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님을 분명히 전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온다. 그는 산헤드

린 공회에 소속된, 오늘날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담비’라 불리는, 왕조차 고개 숙여 존경하는 스승이었고,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바리새파였다. 깊은 밤 그가 인생의 가장 궁극적 질문 ‘구원’에 관해 묻기 위해 목수의 아들을 찾아왔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 한다’고 말씀하셨다.”

“성령 받지 못하면 50년 간 회회를 다니고, 목사, 장로, 집사 같은 직분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도 캘커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는, 40여 명의 고해신부에게 ‘행려병자를 위해 헌신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부흥회가 열렸다. 나이 많은 목사가 울면서 뛰어오더니 무릎 꿇고 ‘미국 뉴욕에서 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 후 러시아에서 10년간 선교를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습시다’라고 고백했다.”

“요새 한국교회가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됐다. 밥을 지을 때, 온도가 100도씨 이상 돼야 밥이 푹 퍼져 영양가가 있다. 그런데 100도씨가 안되고 80도, 70도에서 설익으면 걸로 볼 때는 잘 익은 밥과 비슷해 보이나 맛과 영양이 다르다.”

그는 크리스천이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며 이를 위해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삭개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듯, 성령을 받으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 여호와와의 힘이 크게 임해 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주디 기자

디아스포라 신앙 정체성 심어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과거 열렸던 디아스포라 2011(한민족재외동포세계선교대회) 개막식 사진 ©기독교선교햇볕재단

제2회 2014 햇볕한민족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민족적·신앙적 정체성을 심어주고 한국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화에 동참하도록 동원하는 선교대회가 열렸다.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양재동 햇볕선교센터와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4 제2회 햇볕한민족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가 그것.

이번 대회에는 선교사 자녀를 비롯해 중국동포, 고려인, 탈북자 등 전세계에서 18~40세의 차세대 한인디아스포라 2천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파독 광부, 간호사 출신 동포 50여 명도 참석해 민족적 정체성을 높였다.

대회를 주최한 기독교선교햇볕재단의 이사장이자 선교대회 대회장인 이형자 권사는 “현재 전세계 176개국에 750여 만 명에 이르는 한인디아스포라는 선교강국인 한국교회에 있어 엄청난 잠재력이고 축복”이라며 “한류열풍과 높아진 한국의 위상, 전세계의 준비된 디아스포라 2~4세대들과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한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온누리교회·할렐루야교회·지구촌교회·거룩한빛광성교회·안산제일교회·한밭제일교회와 햇볕교회 등이 협력했다.

이번 대회는 구체적으로 ▲해외 동포들과 국내 연고지가 없는 동포를 초청해 자매결연 시키고 위로하며 ▲선교지에서 태어나 현지 언어, 문화, 풍습, 습관에 이미 익숙한 한인디아스포라 2~4세를 훈련해 현지 선교사로 삼고 ▲한민족의 자긍심을 심어 민족 정체성을 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앞서 2천여 명의 한인디아스포라가 참여한 지난 2011년 제1회 대회가 디아스포라를 통한 세계복음화라는 선교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디아스포라를 선교 자원으로 동원하는 빛장을 여는 대회였다면, 이번 대회는 18~40세의 차세대 청년 디아스포라 선교 동원에 초점을 맞췄다.

하나님이 준비한 한인디아스포라 2~4세를 발굴해 국제적인 훈련을 거쳐 선교사로 임명하고, 한국교회와 자매결연하여 세계선교를 위해 협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짐체에 빠진 한국교회가 한인디아스포라의 순수한 신앙과 열정에 새로운 도전을 받고, 민족분단 문제 해결과 민족과 세계 변혁에 앞장서는 계기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제설교는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 △정성진 거룩한빛광성교회 목사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김종필 한양대학교 목사 △루이스 부시 세계변혁운동 국제대표 △임현수 캐나다 큰빛교회 목사 △정인수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목사 △이영환 한밭제일교회 목사 △김승욱 할렐루야교회 목사 △김준근 JAMA 대표 △투리코 보만 일본 WOGA 대표 △이찬수 분당우리교회 목사(이성 무순) 등이 전했고 간증은 최순영 할렐루야교회 장로, 다니엘 박 부부 등이 맡았다. 나라별 장기자랑, 김치담그기, 한복패션쇼 등 문화행사도 열려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1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잠실실내체육관에서는 2천여 한인디아스포라와 2만여 한국교회 성도가 모이는 대형집회도 열렸다.

마이클 오 국제로잔운동 총재, 로렌 커닝햄 열방대학 총장이 주 강사로 나섰다. 특히 디아스포라인 마이클 오 목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 일본에서 자란 경험을 간증했고, 로렌 커닝햄 목사는 한국교회의 영적 성장과 성숙, 한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대해 강의를 전했다.

또 이화여대 발레단, 1만 명 성가대 합창, 테너 김재우 등이 공연을 선보이며 대회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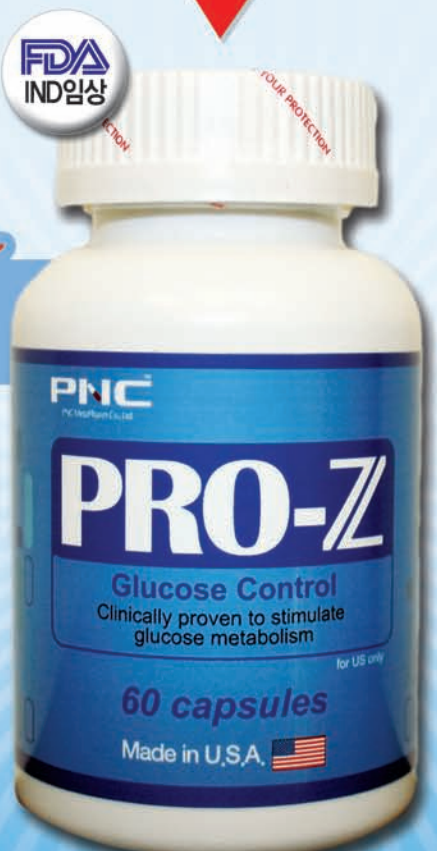
이지희 기자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프로지(PRO-Z)를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에서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를 가능케 해 당뇨병에서 해방됩니다. 프로지(PRO-Z)는 근육세포 내에 당 대사를 거부하는 근본원인을 개선하여 혈당을 스스로 조절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이상 환자에서 혈당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 ✓ 한국 30만명 판매
- ✓ 미국 출시 기념 SALE

Special Price
1병 \$76 3병 \$200 6병 \$372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3차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진주전문회사 고베펠 BIG SALE 시리즈 3탄

KOBE PEARL LAS VEGAS

고베펠 벌몬갤러리아점에서 펼쳐는 -

한여름밤의 Serenade

유색보석 특별보석쇼!

홍산호

7월 14일(월) 부터 7월 20일(일)까지 단 1주일간!
GREAT SUMMER NIGHT 밤 10시까지 연장영업!!

유색보석컬렉션

KOBE PEARL COLORSTONE COLLECTION



유색보석 2중세트
COLORSTONE MATCHED SET \$999



유색보석 2중세트
COLORSTONE MATCHED SET
\$1499~
\$1999



유색보석 3중세트
COLORSTONE MATCHED SET \$2499~\$3999

*고베펠 유색보석 제품은 강남역상동 세공공장에서 제작되는 100% 한국세공제품입니다.
*유색보석 제품은 합성석(Synthetic)입니다. *상위제품 가격은 925 Silver/Platinum 합금 가격기준입니다.

"한국인 정서에는 역시 한국세공 보석이 잘맞습니다!"



서울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고베펠 세공 공장에서
100% 제작된 한국공법 유색보석 신제품들을 만나보세요!

천연 양식 해수진주, 남양진주, 아코야진주 전시 특가 판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세공기술과 진주메카인 일본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전시 특가판매. 경제적인 가격대의 화려한 천연양식진주부터 최고급 품질의 아코야, 남양진주, 타히티 흑진주 등 3000여점의 제품을 진주전문업체 고베펠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일본산 인공홍산호 반지

2014 신제품



\$699 ~ \$799

"진주의 가치를 아시는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헬렌아이코 프리미엄 아코야 컬렉션 특별세일

아코야 한줄 목걸이 (6mm - 6.5mm)
AKOYA SINGLE STRAND w/925 Silver Clasp
Retail, \$3300
▶ \$799

아코야 한줄 목걸이 (6.5mm - 7mm)
AKOYA SINGLE STRAND w/14K Gold Clasp
Retail, \$3999
▶ \$1199

아코야 두줄 목걸이 (6mm - 6.5mm)
AKOYA DOUBLE STRAND w/925 Silver Clasp
Retail, \$5999
▶ \$1499

아코야 한줄 목걸이 (7mm - 8mm)
AKOYA SINGLE STRAND w/14K Gold Clasp
Retail, \$7300
▶ \$2599

* 헬렌아이코 프리미엄 아코야 진주는 화이트톤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이와 크기 및 무게에 따라 가격이
소폭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구입을 서두르세요.
* 모든 헬렌아이코 아코야제품은 보증서와 워런티가 포함됩니다.

UP TO 80% OFF

88불 컬렉션!

인공 핵진주 브로치 18K 도금 CZ 세팅
\$198 ▶ \$88 부터

인공 핵진주 펜던트 목걸이
실버도금 CZ 세팅 \$198 ▶ \$88 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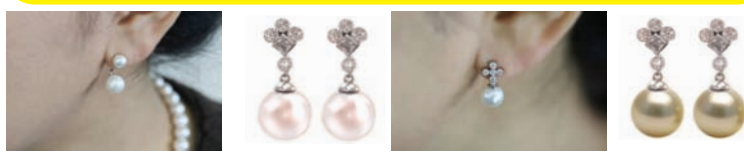
인공 핵진주 실버 귀걸이
\$158 ▶ \$88 부터

무조건 원가 파격 세일!

벌몬갤러리아 마켓 1층
KOBE PEARL LAS VEGAS
5가와 벌몬

WILSHIRE BLVD
VERMONT AVE
5th St

고베펠 진주귀걸이 \$199부터



8월 1일 라스베가스 2호점
그린랜드마켓내 고베펠 매장오픈!
라스베가스 스프링마운틴 그린랜드마켓몰내
1300스퀘어피드 규모의 고베펠 2호점이 탄생합니다.

고베펠과 함께 성장하실
취급점 모집합니다.

고베펠 천연양식 진주목걸이

일본공법 한국세공
파격 원가 처리 최저가 판매

6.5-7.5밀리 (9.25 Silver clasp 실버장식)
▶ \$499 ▶ \$99 ▶ \$88 부터

6.5-7.5밀리 30조 한정 2줄짜리 Double Strands (9.25 Silver clasp 실버장식)
▶ \$1599 ▶ \$599 ▶ \$188 부터

7-8밀리 (14K 장식)
▶ \$999 ▶ \$199 ▶ \$188 부터

8-9밀리 (14K 장식)
▶ \$1299 ▶ \$299 ▶ \$258 부터

9-10밀리 (14K 장식)
▶ \$1499 ▶ \$399 ▶ \$358 부터

* 흰색 이외에도 다양한 색상과 길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6인치 제품 기준가격입니다. 길이나 색상에 따라 추가가격이 발생할수있습니다.)
* 고베펠 진주목걸이는 일본공법 / 한국세공 제품입니다.
* 모든 고베펠 제품은 애프터서비스와 보증서가 첨부됩니다.

KOBE PEARL LAS VEGAS
문의 전화 213.389.3887
440 S. Vermont Ave #110 Los Angeles, CA 90020

<서승원 박사의 신학 칼럼>

하나님의 성호와 그 밖의 호칭들(7)

2. 하나님에 대한 다른 호칭들

1). 엘로힘(אלהים)

이 명칭은 구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다. 창세기 1:1부터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모든 히브리어 단어는 이 말을 번역한 것이다.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단어로서 약 2,570회 사용되었다는 통계가 있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만 나타나고 다른 셈족 언어, 예를 들면 아랍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설이 있다. 이 점은 구약성경 중 몇 군데에서 이 말이 마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야웨"처럼 쓰이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시76:1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 크시도다"에서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의 번역인데, 여기서 "엘로힘"이 단순히 신을 뜻하는 보통명사로 사용되었다면 어느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시77:13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에서 "하나님"이란 말에는 "엘로힘"이 그리고 "신"이라는 말에는 "엘"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시63:1 "하나님 이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에서도 처음 "하나님"이란 말에는 "엘로힘"이, 두 번째 "하나님"에는 "엘"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엘로힘"은 "야웨"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엘로힘"과 "야웨"가 같은 뜻으로 쓰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예가 시68:24에도 나온다.

그러나 사46:9에 "나는 하나님이 다.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칭하는 말로 "엘" (אל)이란 말을 사용하시고 다른 신에 대해서는 "엘로힘" (אלהים)이란 말을 사용하셨

다. 이에 앞서 사45:22에서도 하나님께서 유사한 말씀을 하실 때 자신에 대해서 "엘"이란 단어를 사용하셨다. 뿐만 아니라 시50:1; 78:35; 83:1; 118:28; 잠20:29 등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구절에서 "엘로힘"과 "엘"이 아무런 구별 없이 "야웨"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엘로힘"을, 그리고 이방 신을 지칭할 때는 "엘"을 사용하였으나 후에는 그런 구별없이 두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엘로힘"은 문법적으로는 남성복수형이다. 따라서 그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들(gods)이 되겠지만 이 말이 구약의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 형식은 복수이나 그 의미는 단수이다. 이러한 용법을 문법적으로는 "장엄의 복수"(majestic plural)라고 부른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말이 주어로 쓰였을 때 술어동사나 그 수식어가 단수형이지만 드물기는 해도 복수형이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말이 항상 하나님의 장엄하심이나 존경의 염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바로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46:9; 45:22에서 "나는 하나님이 다.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칭하는 말로 "엘" (אל)이란 말을 사용하시고 다른 신에 대해서는 "엘로힘" (אלהים)이란 말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사46:9 외에도 시86:8에서 "엘로힘"은 이방신들을 뜻한다. 그러니까 "엘로힘"이 이방신을 지칭할 경우에는 "엘"의 복수형인 "엘림"과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복수이고, 장엄의 복수는 아닌 것이다.

다만 "엘로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를 지칭할 때만 장엄의 복수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라고 할 수 있고 이때는 단수로 취급되는 것이다.

엘로힘의 다른 뜻

이 말이 항상 하나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출22:8-9에서 이 말은 지배자들 또는 재판장들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때로는 천사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들의 영혼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된다(삼상 28:13; 사8:19). 그 외에 이 말은 최상급 형용사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창30:8에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원문의 문자적인 번역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다(בָּרַחַם אֱלֹהִים לְרַחֵם)"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싸움"이란 "가장 큰 싸움" 또는 "아주 큰 싸움"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창35:5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에서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고로"에 해당하는 원문의 문자적인 번역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의 주위에 있는 도시들 위에 있어서"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두려움"은 큰 두려움이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삼상14:15에 "뜰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에서 "큰 떨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번역은 "하나님의 두려움" (פַּחַד אֱלֹהִים)의 번역이다. 대하20:29에도 "하나님의 두려움" (פַּחַד אֱלֹהִים)이란 말이 나오는데 동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구절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보다 문자적인 해석은 "야웨가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큰 두려움(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땅의 모든 나라들 위에 있었다(임하였다)"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 대하17:10에는 "야웨의 두려움" (פַּחַד אֱלֹהִי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나오는 문장의 형식이 20:29에서 "하나님의 두려움" (פַּחַד אֱלֹהִים)에 나오는 문장의 형식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두 말이 동일한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드물기는 하지만 "야웨"도 "엘로힘"처럼 최상급의 형용사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야웨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두려움"은 물론 "야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며, 이 말들이 "큰 두려움"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 시68:15에서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에서 "하나님의 산"과 "높은 산"은 서로 같은 의미이다. 유사한 예를 은3:3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왕삼3:28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에서 "하나님의 지혜" (חֵכֶם אֱלֹהִים)도 같은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50:2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라고 되어 있는

데, 문자적인 번역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름다움이 빛을 발한다"인데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 (אלהים)도 같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엘로힘의 단수형은 무엇인가?

그런데 엘로힘이 남성복수형이라면 그 단수형은 무엇인가? 신을 지칭하는 단수형의 명사는 엘(אל)과 엘로야흐(אלה)이다. 따라서 이 둘 중 하나가 그 단수형일 것이다. 그런데 "엘로야흐"보다는 "엘"의 복수형으로 보는 학자들이 더 많다. 그러나 시29:1에서 보듯이 "엘" (אל)의 복수형은 "엘림" (אלים)이기 때문에 "엘로힘"이 엘의 복수형이라기보다는 "엘로야흐"의 복수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엘로야흐"는 욥기와 같이 바벨론 포로생활 이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책들에 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주장 모두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적어도 형태론적인 측면에서는 "엘로힘"을 "엘로야흐"의 복수형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그리고 이 명칭이 주로 후기에 나타난다고 해서 그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편에는 "엘로힘"과 함께 "엘"이 자주 등장하지만 드물게는 "엘로야흐"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시18:32; 50:2에 "엘로야흐"가 등장하는데, 시18에서는 "엘" "엘로야흐" 그리고 "엘로힘"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시편은 동일한 시기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걸쳐 전해오는 노래들을 편집한 책이기 때문에 시18, 50편이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 없다. 적어도 시18에 대한 설명에는 그것이 다윗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엘로야흐"가 등장하는 시편이 바벨론 포로생활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계속>

하와이에서 날아온 “카톡”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수년 전에 나이 드신 목사님이 본인의 젊음을 과시하기 위해 "나는 카카오톡도 합니다"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무슨 자동차 부품 이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의 전화기에도 카톡 메시지가 심심찮게 들어옵니다. 지난 주에 하와이 코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장요한 목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영어로 된 몇 가지 권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 안에 있는 글은

제가 첨언한 내용들입니다.
Trust in His timing!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일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 늦는 법도 없고 너무 빠른 법도 없습니다.)
Rely on His promise!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의 약속도 여전히 살아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Wait for His answers!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Believe in His miracles!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 편에서 볼 때에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Rejoice in His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그가 우리에게 좋은 일

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Relax in Hi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 평안을 누리십시오. 어머니 품 속에 있는 젖먹이 아이의 평안한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었습니까?)
Stay in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 마지막 말은 제가 덧붙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의 얼굴로부터 밝은 빛이 번져 나갈 것입니다.)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경산한외과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물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외과 대학교수) T.(213)380-0853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보시기에 좋았더라

김양재 | 두란노 | 324쪽

저자의 첫 번째 창세기 큐티 노트. 1장부터 5장까지를 담아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의 회복을 주장한다. 사람들이 위선과 체면, 가면을 벗고 본 모습을 드러내며 안식을 얻게 하는 '우리들교회식' 큐티는 여전하다. 저자는 창세기를 잘 읽으면 인생이 보이고, 성경 전체가 보인다고 말한다.



영광스러운 비전

피영민 | 검과훈손 | 3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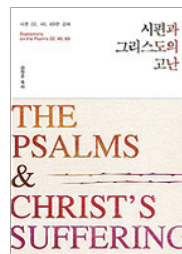
설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책 중 하나인 에스겔서를 명료하게 해석했다. 포로 생활 중에서도, 소망이 있어 백성들은 그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었다. '영광스러운 새 성전의 비밀'에 대한 예언은,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교회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이다. 개혁주의적 입장의 성서해석 자료이다.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김현수 | 성약 | 256쪽

저자의 시편 22, 40, 69편 강해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 묵묵히 감당하신 고난의 삶과, 신자들 자신이 그 더 위에서 교회를 이뤄가는 삶을 함께 조명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부르짖었던 시편 말씀들을 통해 그의 고난과 아픔을 다시금 묵상할 수 있다.



믿음의 눈을 뜨라

박지웅 | 생명의말씀사 | 256쪽

저자는 인생이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다. 직장인 출신 목회자라는 점을 살려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며 해석해야 하는지를, 일방적이고 준엄한 가르침이 아닌, 따뜻한 목소리로 전해주려 노력하고 있다.



REVIEW

종교적 신념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톨스토이의 걸작 <부활>

이 소설은 처음 <코니의 수기>란 이름이 붙었는데, 그것은 작가가 우연히 A. F. 코니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그 뼈대가 되었다. 코니는 핀란드의 어느 고아 소녀의 비극적 이야기를 톨스토이에게 들려줬다. 과거에 한 처녀를 유혹한 남자가 배심원이 되어 법정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양심의 눈을 뜨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도덕적이며 심리적인 면에서만 고찰하고자 했지, 최종 원고에서처럼 날카로운 사회적 비판을 예정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나 작품을 써 나가는 동안에 <코니의 수기>는 법정 재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작가의 관심은 차츰 사회적 쪽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구상 아래 1895년에 <코니의 수기>는 일단 완성을 보였지만, 그것은 지금의 <부활>과는 많이 달랐다. 작가는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난 후, 이 작품을 철저히 개작했다. 개작이 진행됨에 따라 작품은 사회문제를 포함하는 장편소

설로 그 모습이 바뀌었고, 제정 러시아의 정권과 교회를 고발하는 비판적인 내용이 가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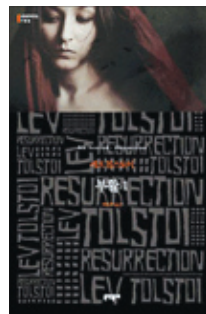
<부활>은 여성 죄수 마슬로바가 출정하기 위해 교도소 감방을 나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슬로바는 농부의 딸인 어머니가 죽자 그 주인인 여자 지주에게 맡겨져 '카튜사'란 이름으로 불리며 귀여움을 받았으나, 18세가 되던 봄, 여주인의 조카딸 되는 젊은 공작에게 유혹을 받아 정조를 바치고 임신하게 된다. 공작이 떠난 후, 카튜사는 주인집을 뛰쳐나와 직업을 이것저것 바꾸면서 살아간다. 끝내 창녀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데 그녀가 26세 되던 해에 생각지도 않던 사건이 일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법정에서 풀려나온 것이다. 한편, 카튜사를 유혹한 네플류도프 공작은 지금 배심원의 한 사람으로 법정에서 출두, 마슬로바가 지난날 자기 유혹해서 몸을 빼앗은 여인임을 발견하고 매우 놀라게 된다.

그날 저녁부터 공작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튿날에는 감옥

으로 그녀를 찾아가 용서를 빌지만, 카튜사의 태도는 냉담했다. 카튜사에게는 지난날의 상처가 다시 생각하기조차 쓰라린 것이었기 때문이다.

네플류도프는 이 면회에서 강한 충격을 받은 후, 이번에는야말로 끝까지 양심에 충실하리라 맹세한다. 그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항소를 시도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고, 카튜사는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된다. 양심의 가책을 못 이긴 네플류도프는 카튜사를 따라 시베리아로 가려고 3등 열차에 오른다.

죄수의 무리가 먼 길을 걸었을 때, 카튜사는 네플류도프의 주선으로 형사범의 대열에서 정치범의 대열로 옮겨진다. 이것은 그녀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위안을 주었다. 특히 그녀는 일행 가운데 시몬스라는 남성과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성 정치범에게서 큰 영향을 받는다. 죄수들의 여정은 악천후를 무릅쓰면서 계속되었다. 그러나 네플류도프는 카튜사의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쁨을 누를 길이 없었다. 시베리아에 도



부활 | 톨스토이 문학동네 | 312쪽

는 그가 애독하던 신약성경 속 '산상 보훈(마 5-7장)'의 사상이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네플류도프의 마음은, 오랫동안 고통 끝에 드디어 참다운 평안을 얻게 된다.

톨스토이는 그의 또다른 책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진정한 예술은 기독교 예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독교 예술의 주제는 사람들과 하나님, 또 사람들과 사람들 상호 간의 결합을 도모할 수 있는 감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활>은 바로 톨스토이의 이런 예술론을 실천하기 위해 쓴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톨스토이는 한 귀족과 창녀가 정신적으로 부활하는 과정을 통해, 당대 러시아의 정치, 경제, 법률, 종교 등에서 일어나는 불합리성에 예리한 비판을 가한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자신의 사상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송광택 목사 (한국기독교독서문화연구원)

9가 로데오 갤러리아몰
OPERA HOUSE
Bakery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환영 T. (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Suite # 38 Los Angeles, CA 90005

「오늘 더 행복해」 펴내... “우선순위 불확실했다면 고갈됐을 것”

선행 천사 선 · 정혜영 부부

“나눌 수 있는 건 바로 이 행복 덕분”



‘연예계 대표 선행 스타’로 차인표·신애라 부부와 더불어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선·정혜영 부부가, 4일 오후 서울 합정동 홀트아동복지회에서 결혼 10주년을 맞아 출간된 가족 에세이 <오늘 더 행복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결혼 후 ‘미니홈피’에 올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2008년 첫 포토 에세이 <오늘 더 사랑해>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6년 만에 2남 2녀의 자녀들과 오손도손 살아가는 일상과 가장(家長)인 선의 여러 사회활동 등을 담아 <오늘 더 행복해>를 펴냈다.

선 씨는 “첫 책 이후 두 명의 아이들이 늘어난 내용뿐 아니라, 우리의 깊은 이야기들도 담아내고 싶어 며칠 밤을 새고 고민하기도 했다”며 “가수로서 작업을 할 때도 첫 앨범보다 두 번째 앨범이 더 힘든 것처럼 책도 첫 번째보다 조금 더 힘들었는데, 막상 나오니 표지부터 매우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첫 책 <오늘 더 사랑해>는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둘째 하랑이와 정혜영 씨의 100일 ‘셀카’였고, 이번에도 두 사람이 ‘표지모델’로 낙점됐다.

‘선행 부부’, ‘기부 천사’로 늘 공개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

까. 이에 대해 그는 “누구의 롤 모델이 되고자 살진 않았다”며 “저는 가장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정혜영으로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자 했을 뿐인데, 그 모습들이 행복해 보여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다”고 밝혔다.

책에서도 그는 “아직도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게 즐거운 힙합가수이고 또한 ‘소셜테이너’이지만, 요새 주변 분들이 제게 운동선수나 사회복지사 아니냐고 한다”며 “가끔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감당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우선순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답한다”고

했다. 그에게 가장 먼저는 ‘가족’이다. 가족은 뒤로 하고 이웃 돕기에만 바빴다면, 아마 벌써 고갈되고 지쳐 넘어졌을지 모른다는 것.

선 씨는 “제 나눔은 우리 가정의 행복에서 시작되고, 우리 가정에서 차고 넘치는 행복으로 나누기에 제게 나눔은 행복의 연장선”이라며 “우리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고, 제가 하는 일은 그 행복의 힘으로 다른 사람도 행복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한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할 일이 보이고 도와 달라는 요청도 많아지는데, 다 도울 수는 없지만 ‘한 명이라도 내가 도와야지’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밤

피’부터 캠페션, 홀트아동복지회, 루게릭 전문요양병원, 어린이 재활병원 등이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식 다음날, 감사함을 작게라도 나누며 살자는 결단과 행함이 ‘하루 1만원’의 시작이었다.

하루 1만원의 나눔이 커지고 커져, 현재 800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됐다. 정혜영 씨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기로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며 “결혼 1주년을 맞아 밥피 노숙자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작은 것을 드렸는데, 얻은 행복이 넘치게 느껴져 그때부터 조금씩 후원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다.



후원 어린이들과 함께한 선 ©YG 제공



오늘 더 행복해
선, 정혜영 | 흥성사 | 192쪽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복했고
다른 이를 사랑하면서 행복합니다

그녀는 “우리 네 아이들뿐 아니라 다른 세계의 아이들과 우리나라까지 800명을 품게 된 것은 제가 필리핀에 비전트립을 가서 아이들이 사는 모습을 본 후였다”며 “당장은 가난에서 벗어나 수 없겠지만, 이 아이들에게 베푸는 약간의 도움으로 이들의 가정이 바뀌고 세계가 바뀔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부부는 ‘내 집 마련의 꿈’ 대신 100명을 품었고, 남편이 아이티를 다녀오면서 그 숫자가 늘었다. 정 씨는 “이렇게 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가지는 것 같다”고도 했다.

네 명의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해서는 “자녀가 네 명인 어느 가족(이재철 목사 부부)을 보고 ‘저 분들처럼 예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 가정은 남자 아이만 네 명이지만, 우리는 두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자가 있어, 업그레이드 된 예쁜 가정이 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선 씨는 “원래 아내는 한 명만 낳아 예쁘게 키우고 싶었는데, 첫째 하음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네 명의 아이를 키우는 일이 늘 행

복할 수 없을 터. 아내이자 엄마인 정혜영 씨는 이에 대해 “한 명이 아닌 네 명이었기에 정말 힘든 일이었다”며 “남편이 많이 도와주지만, 엄마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채워가는 게 쉽지않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래서 ‘정혜영이기만’을 고집하면 더 힘들 것이라 생각했다.

“아이를 낳고, 아이의 엄마로서 많이 울기도 하고 혼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 버거웠지만, 아이가 방긋 웃어줄 때 행복했어요. ‘육아의 달인’인 남편이 없었다면 힘들고 지쳤을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두 사람 다 눈이 아이에게만 매달려 있지 않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고, 그 후 아이를 바라보았기에 숨통이 트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들은 네 명의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하고 있을까. 정혜영 씨는 “저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저희는 아이들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축복해’,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해 줬다”고 설명했다. 첫째 하음으로부터 자고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축복해’라고 이야기해 줬더니, 둘째가 태어나자 가르친 적도 없는데 자신이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하더라는 것. 셋째가 태어나자 언니와 오빠가 된 두 자녀도 축복을 전하면서, 이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정 씨는 “요즘엔 가끔 아이들이 먼저 ‘사랑해, 축복해, 일어나’ 하면서 저를 깨우기도 한다”고 했다.

선 씨는 “매일 저녁 기도할 때, 아이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며 “아프리카를 가본 적도 없고 영상으로 접했을 뿐이지만, 그들이 먹지 못한다는 걸 알고 ‘우리가 풍부하게 누리는 건 그들과 나누기 위함’이라는 걸 조금씩 인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 놀랄 때도 있다”고 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사인이나 ‘독자와의 만남’ 등으로 책을 통해 소통하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10여년간 육아에 진력한 아내에 대해 선 씨는 “물론 본인에게도 보석 같겠지만, 10년 동안 아이를 네 명이나 선물해 줬다”며 “하지만 배우로서는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살지 않았나 해서

이제 여배우의 모습으로 좋은 작품들을 통해 많은 분들과 호흡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 때문에 좋은 작품을 몇 개 놓친 것을 알고 있다”며 “제가 오히려 아쉬워하면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그게 엄마의 힘인 것 같다”고 전했다.

<오늘 더 행복해>에는 선 씨의 기부활동과 정혜영 씨의 육아 이야기, 부부가 생각하는 자녀 양육 원칙과 여러 에피소드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리고 곳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은혜가 녹아 있다.

“우리에게는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만

남을 통해 일하시는 걸 볼 때마다 참 감사할 뿐입니다.”

“훈육은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하음이 아주 어릴 때 잘못하면 작은 잘못이든 큰 잘못이든 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 저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듣는 하음도 다음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기도를 기억해 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행복했고, 제가 혜영이를 사랑하면서 행복했고, 그 행복 속에 하음이 하람이 하율이 하엘이가 함께해서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행복해 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대웅 기자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깃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깃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깃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35.5900 714.743.1000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받았으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제당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해당체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해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해당체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명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위장에 인슐린 분해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당뇨병을 앓고자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1병 \$76 + tax
3병 \$200 + tax
6병 \$372 + tax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미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중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션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잠잘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툰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CHI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탄산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윈현대 칼슨 Win Hyundai Carson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Genesis 2014 3.8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김인수 목사의 한국 교회사 이야기>

초기 한국 선교사들의 교육 열정

대체로 어느 선교지든지 선교 초기에는 의료 사역과 더불어 교육 사업이 대종을 이룬다. 선교 이론 신학자 앤더슨(Rufus Anderson)은 선교지에서 병원이거나 학교를 세워서는 안 되고, 오직 복음 선교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교지에서 병원과 학교 사역이 폐쇄되고 퇴출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사역은 선교 전초 작업으로 혹은 선교사역 그 자체로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다. 한국에서도 이 두 사역은 빼 놓을 수 없는 중요 업무였다. 의료 사역은 병든 사람들을 상대하지만, 교육 사업은 모든 아이들과 문맹 성인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선교이다.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모아 수용했다. 그는 1886년 2월 정부 허가를 얻어 조그마한 집을 마련하고 고아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고아원은 장로교 선교부가 '네비우스(Nevius)정책'을 채택하며, 자립정신을 강조하면서, 문을 닫았다. 한국에 최초로 근대식 학교를 세운 이는 감리교회 의사며 목사인 스크랜튼(William Scranton)의 모친 메리 스크랜튼(Mary Scranton) 여사이다. 그녀가 세운 학교가 바로 이화학당(梨花學堂)이다. 메리는 1885년 6월 한국에 도착하여 서울 정동 감리교 선교 본부 지역에 20여 채의 초가집과 빈터를 구매하여 '여자학당'과 '부녀원'을 짓기 시작했다. 건물은 1886년 11월에 완성되자, 이곳에 최초의 여학교를 시작했다. 민왕후는 조선왕조 상징 꽃인 배꽃(梨花)을 이 학교 이름으로 지어 '이화학당(梨花學堂)이라 명명했다. 이리하여 우리 민족사에 지울 수 없는 업적을 남긴 무수한 여성 지도자를 배출한 오늘 이화여자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여기서 출발했다. 따라서 한국 근대 학교의 효시는 이화학당이다. 한국 근대화의 첨병인 학교 중 여자학당이 먼저 세워진 일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한국 여성은 4천년 동안 교육은 고사하고 아들 낳는 기쁨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람 취급을 받는 인간 선연이 이루어진 것이다.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항구적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근대식 교육 기관은 선교사들에 의해 비롯됐다. 한국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됐을 때, 한국의 초등교육 기관은 서당 정도에 불과했다. 서당은 한문이나 가르치는 기초 학교였다. 이나마 양반이나 여유 있는 집 자제들이 아니면 갈 수 없었고 가난한 집 아이는 업두도 내지 못했다. 가장 먼저 학교 형태로 교육을 시작한 선교사는 언더우드였다. 그는 한국에 오자마자 길가에 버려진 고아들을

학생과 더불어 교육을 시작했다. 여기서 수학한 이들이 후에 공식 통역관이 됐으나 그들은 기독교 교리를 미처 알지 못하고 떠났다. 1887년 국왕 고종은 이 학교 이름을 하사했는데, '좋은 일꾼을 많이 길러 내리'는 의미로 '배재학당(培材學堂)이라 지어 주었다. 이 학교는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육시키지 않고 등록금을 받았다. 1888년부터 학교에 자조부(自助部)를 두고 학교를 지키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일을 하게 하여 학자금을 벌여 공부하도록 유도했다. 1894년에는 학교의 규모가 제법 커져 고대사, 물리, 화학, 경제, 성악, 성경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고, 등록 학생도 100명이 넘었다. 이 학교가 오늘 배재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된 것은 주지하는 바다.

한국에 대학이 세워진 것은 평양에서 장·감이 연합하여 세운 숭실대학이다.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베어드(W.M.Baird)가 내한하여 평양에서 시작한 이 학교는 선교부간 협력이 잘 이루어져 연합으로 경영했다. 1906년 10월 이 학교는 '평양연합기독교대학'(Pyongyang Union Christian College and Academy: 한국명 崇實大學)으로 출범했다. 1908년 5월, 두 사람이 졸업하여, 한국에서 최초로 학사 학위(College Diploma)를 받는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선교사 주도로 시작된 기독교 학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과 공헌에 대해 후대의 한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병자와 환자에 대한 과학적 치료 2) 빈민, 고아 등에 대한 조직적인 보호책 3) 미신숭배의 감소 4) 어린이에 대한 존중 5) 조혼과 혼인속속의 개선 6) 여성에 대한 태도와 처우 개선 7) 민주주의 사상과 민족 자존심의 양양과 재평가 8) 학문과 문화교육의 개선과 한글의 보급 및 일반화 9) 민주적인 인간관계의 발전과 계급차별 타파 10)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심 11) 알콜, 마약 등에 대한 계몽 12) 근대 과학적인 학교 교육에 대한 요청과 존중의 증대 등이다. 이런 분석 외에도 음양으로 이들 학교가 한국 교회와 나라에 끼친 공헌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초기 선교 사역은 의료와 교육으로부터 시작됐다. 감리교회 스크랜튼이 "병원은 쟁기로 땅을 갈고, 교육은 씨를 뿌리기 위해 씨레로 땅을 고르는 작업을 했다"는 말은 한국 초기 선교에서 의료와 교육 사역의 역할을 적절히 표현한 것이다. 초기 선교사들은 그들이 뿌린 씨앗이 언젠가 열매 맺어 추수할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결코 잊어본 일이 없었다. 그리고 그 결실은 불완전한 정래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계속)



한국 최초의 근대식 학교 이화학당

빌리 그레함 목사의 딸

“심판이 가까웠다” 며 각성 촉구

7개월 동안 7일간 7시간 기도하는 '777운동' 제안



앤 그레함 라츠 목사

빌리 그레함 목사의 딸인 앤 그레함 라츠(Anne Graham Lotz) 목사가 기독교인들에게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자”며 영적인 각성을 촉구했다.

라츠 목사는 기독교방송네트워크(Catholic Broadcasting Network)의 팻 로버트슨(Pat Robertson) 회장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끝날이 가까웠고, 더 많은 이들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움직임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녀는 투병 중인 남편 댄 라츠(Dan Lotz) 박사를 간호하느라 노방 전도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더 조용히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며 “하나님께서 전에 내가 바쁠 때는 들어보지 못한 일들을 고요함 속에서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라츠 목사는 이어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내게 강조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인류 역사의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순종 가운데, 승리의 나팔과 경고의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이것은 '777'이라는 이름의 전국적인 기도운동을 시작하라는, 긴급한 기도의 요청이다. 크리스천들이 7개월 동안 1일부터 7일까지 7일 동안 기도하라는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7시간 기도하길 원하셨다.”

그녀가 제시한 기도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 들어온 악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둘째, 성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널리 전파되고, 그의 교회와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셋째,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나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권 하시고, 전국적으로 거대한 영적 각성이 있게 하옵소서.

라츠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한 목소리와 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7일 동안 매일 기도의 제목을 그녀의 웹사이트에 띄울 예정이다.

그녀는 ‘기도의 요청’은 어떤 무엇인가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라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구금됐던 수단 여성 “족쇄차고 출산, 딸에게 장애 생겨”

최근,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임신한 상태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비인간적인 수단 당국의 조치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덕분에 석방된 수단 여성 메리엄 이브라힘(Meriam Ibrahim)이 족쇄를 찬 채로 출산해야 했기에 딸에게 신체적 장애가 생겼다고 말했다.

석방된 후 수단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브라힘은 출산 이후인 5월 27일 영국 가디언(Guardian) 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했다. 임신 8개월에 이브라힘은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수단의 수도 하르툼(North Khartoum)에 위치한 움두만(Omdurman) 여성 수용소에서 족쇄가 채워진 상태에서 출산했다.

이브라힘은 족쇄를 차고 출산하느라 딸 마야(Maya)가 정상적이지 않은 자세로 태어났으며 그 결과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야가 앞으로 보행을 위한 도움을 받

아야 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브라힘은 “나는 수감이나 족쇄를 차고 있었다. 출산을 위해 조산사가 탁자에서 내 몸을 일으켰다. 나는 놀지 못했다”며 충격적 기억을 떠올렸다.

지난주 이브라힘은 석방됐으며 수단과 미국 시민권 소지자인 남편과 함께 수단을 떠나 미국으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던 중, 여행증빙서류를 조작해 수단을 떠나려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측이 주장한 혐의를 부인했다.

수단 당국은 이브라힘이 남수단 여행서류를 사용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미 국무부 측은 그가 수단을 떠날 수 있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췄다고 말했다. 지난주 마리 하프(Marie Harf) 미 국무부 대변인은 “그가 수단을 떠나는 것은 수단 정부의 허락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 주디 기자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전인치유 한의사가 되는길."

"가주면허 100% 합격률, 취업 훈련, 자체 유학비자 발급, 일대일 임상지도"

- 입학자격 : 대학 60학점 이수하실 분, 대학 60 학점 이수 하신분, 대학 졸업자, 의료계 종사자(간호사, 물리 치료사, 약사, 의사, 카이로 프랙터)
- 입 학 : 수시 입학 상담
- 입학문의: 562) 965-5112 / 김성일 박사 gsu_inc77@yahoo.com

부설

단기 의료 선교 훈련반

단기 의료 선교 도우미 사역 준비

양·한방, 간호사 보조 및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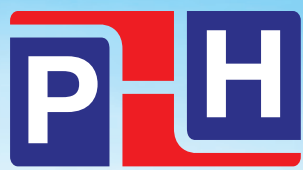
각교회 의료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받습니다.

* 대학병원안내: 진료시간 월-금 9:00-7:00 pm 토: 10:00-3:00 pm
경험많고 유능한 교수의료진 서비스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9047 E.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7 July
Special
Program**

**(FULL OPTION)
ALL NEW
2015
GENESIS SEDAN**

\$428 ^{+TAX}
36
Mon.

MSRP: \$55955 / SELL : \$50428
LEASE DUE AT SIGNING \$6,275 12,000 MILES
PER YEAR VOC \$1000, LEASE \$500. BOOST UP
CASH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Stock# FU017232



**2014
HYUNDAI
SONATA GLS**

\$88 ^{+TAX}
36
Mon.

MSRP: \$22,415. 36 month lease.
After \$3,499 due at lease signing +
\$750 lease cash + \$500 Valued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NEW
2013 EQUUS
ULTIMATE
PACKAGE**

PURCHASE FOR AS LOW AS

\$52,170
^{+FEES}

Stock# DU070308
MSRP: \$67,170



SAVE UP TO
\$15,000



스티브 장
626.513.4006



찰리 정
626.513.4981



저스틴 길
626.513.4580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www.phhyundai.com

